

편견을 버리며 다시도 HerStory!

편집위원 모집

학번, 나이 상관없음
연락처 510-1294 019-506-7936
jaird@freechdl.com

수기&감상문 모집

여학생 잡지 HerStory에서 독자 여러분의 수기와 감상문을 모집합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모집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은 o2s44@freechdl.com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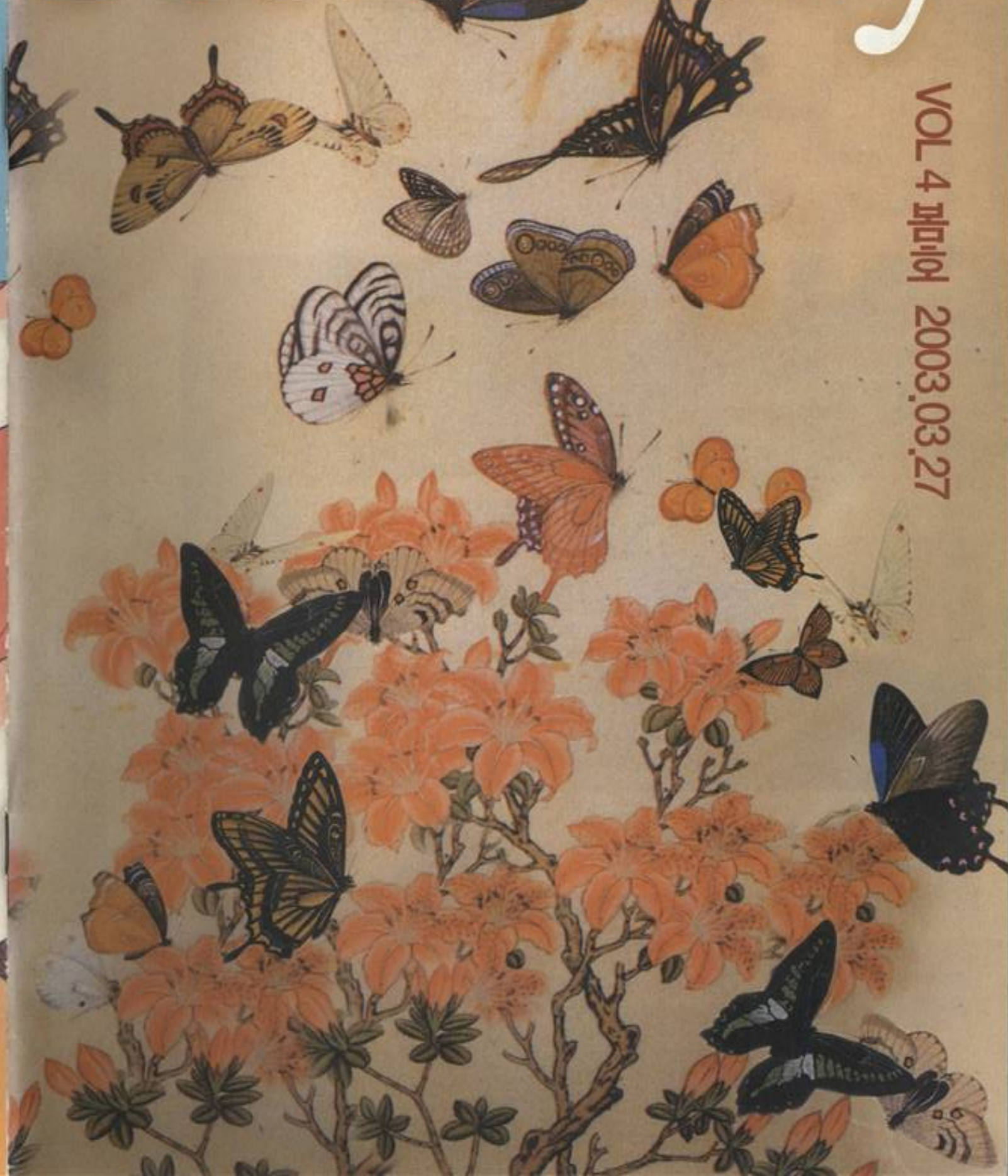
다음호 수기 주제는 '초딩 동창을 만났을 때'입니다.

감상문의 추천도서를 소개합니다.
행복한 페미니즘, 벨 훅스의 페미니즘, 살에게 말을 걸어봐, 이유경호, 이프르, 색수업러티의 매춘화, 캐슬린 배리, 삼인, 자궁의 역사, 라나 톰슨, 아침이슬

HerStory

부산대여학생잡지

VOL 4 페미어 2003.03.27



글 | 벨리 ddos@vtrichal.com



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사투리에 ~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경상도요!

"단란은 포기했다. 술이나 췌라!"

적어도 '밥'을 집행할 사람을 뽑는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여성을 술안주로 삼는 '단란주점'이라고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맙시다.

하나,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수도 있겠네요.

적어도 코메디 같은 이세상에서는 말입니다.

Contents

여자의 책	2
기획특집 [戀愛]	4 사랑법 제 2막
	6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법
	8 나와 언니의 평범한 연애담
	10 대답 너 연애하니?
	12 여백에 수놓은 사랑이야기
	14 신용카드와 성매매의 공생관계
단신	17 The Women's News
	18 총학 예비군차량지원
	21 2003년 생존전략 총여학생회 상반기 예산안
가상 [interview]	22 내가 만난 나혜석
	24 나눔의 집을 다녀와서
	28 부산대 여성주의 소모임을 찾아서
	30 신입생 환영문화를 되짚으며 상상력의 빈곤에서 벗어나기
만화	34 여자 대 (vs) 탐험 '두 딸 이야기'
	36 강대통씨 글을 읽고
수기	38 연애수기
서평	40 유리천장 통과하기
	42 일상의 반란
	44 새나기를 위한 페이지
칼럼	46 남을 때리거나 해치지 마시다



표지그림 - 한국의 민화 초충도 草蟲圖

만든곳 **헬스토크** 참여학생회 잡지팀
 만인이 강동, 고려, 평상심, 영화
 발행일 2002년 12월 10일
 디자인 문화잡지 보일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문정회관 4층 참여학생회 T 510-1924

부산대여학생잡지 VOL.4 번호 2003.03.27

편집후기

Pour toi, mon Amour! - 짝꿍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마감이 시달리다 보니 어느새 마감 되었군요.
감동·또 감동·글을 쓸 때마다 레포트를 쓰고 있는 듯한 나 자신을 발견하며,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글투때문에 고통에 시달렸지만 막상 해놓고 보면 언제나 의
미있는 작업입니다. —: 앞으로 또 오래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지를 보고 행복했기를!

매날 꿀피. 원고도 후기도 아 언제쯤 나의 꿀피인생에도 광명이 ㅠ ㅠ 영화

새로운 이름, 새로운 공간,
나의 발걸음에 음악으로 새겨진 발자국이 내 안에서 의미없이 지워지지 않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으니 열심히 봐 주길,
나는 그래다, 그래 그래 술 그래, 고향지리는 그래, 머리카락 돌+그래, 우히히·
-그래



바

아흐로, 봄날이다.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조금 남아있지만 곧 물러가겠지. 봄이라 그런지 주위에서 사랑타령을 늘어놓는 이들이 많다. 지구 한쪽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사랑을 갈구하기 마련인 것 같다. 흔히 옛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에게 대학시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또 사랑을 해보라고들 한다. 요즘에는 덧붙여서 하나 더, 학과공부와 취직준비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지만 특히 연애는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난 대학교를 5년째 서성대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동안에 참 많지도 연애를 해왔고, (같은 말이지만) 실연도 많이 겪었다. 그 많은 연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에 대해 꼭 부러진 답을 말할 자신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먼저 겪었던 것들을 털어놓는 것이 아마도 같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을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던 기억들을 끄집어내 본다.

대학시절 동안 지금까지 7번의 연애를 했고, 하고 있다. 600일날 깨진 적도 있고 연애했다고 부르기에도 민망하게 보름정도 간 사람도 있다. 4번째 연애가 끝나고서 3학년 여름방학-내가 대학동안 연애를 안한 때를 해아려 보았더니 2달밖에 안되었다. 물론 그 시기에도 작업 중이었으니 쉬지 않고 연애를 했다고 봐야할 터이고, 난 그 사실에 꽤 충격을 받았었다. 그리하여 자성(?)의 시간을 좀 갖기도 했다. 나의 경우에 대개 한 사람이 가고 나면 바로바로 다른 사람이 나타났더라. 그때마다 큰 고민없이 대충 시기적절할 때 나타나 호감이 느껴지는 정도면 사귀었다. 내가 어떤 타입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과 잘 어울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었다. 별다른 생각없이 했던 연애는 그래서 번번히 깨졌다. (아, 물론 지금은 아니다.)

연애를 하면서 좋았던 기억들이 많다. 그게 아마도 연애가 번번이 깨지면서도, 상처에 아파하면서도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힘이었을 것이다. 연애를 통해 나는 내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사남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금은 그런 점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 연애는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사랑을 한다는 것, 누군가를 제지 않고 아껴준다는 것, 혹은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가슴 가득 뿌듯함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충만함은 자신을 너그럽게 한다. 연애를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알게되고 서로 배려하며 관계맺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사랑이 끝난 뒤 무척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연애를 경험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되면서 후에 느낀 것인데, 나는 자라오면서 사랑이란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난 오빠와 동생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자란 둘째인데, 여타의 둘째들과 같이 유달리 생존본능이 강하다. 아마도 집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관심이 비껴가고,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일거다. (언젠가 둘째의 울분을 토로하며 한 친구와 급속도로 친해졌던 경험이 있다. 둘째들만의 동류의식이랄까.) 암튼 별난 오빠와 동생에 집안의 관심이 쏠린 탓에 나는 그저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관심을 받기 위해 착한딸 노릇을 했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착한여자, 착한딸 콤플렉스가 나의 욕구들을 솔직하게 바라보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도록 억압했던 것 같아. 비록 부모님들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더라도 매우 화가 나지만 말이다. 아무튼 착박 막혀있던 내 감정들이 연애를 통해 사랑을 알아가면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가까워수록,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매우 서글고도 신경질적인 것 같다. 두 번째 연애 때까지 난 질투가 굉장했다. 사랑을 빼돌기 보다는 주지 않는다고 상대에 대해서 화만 내고, 물론 요즘에는 질투가 없느냐 하면 그런 절대로 아니지만, 처음 사귀었을 때에는 모든 것에 다 질투가나고 신경질이 났었다. 심지어 나를 두고 친구와 놀



라기는 것까지 용납하지 않았다. 그 후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다. 그런 집착이야말로 사랑의 과격으로 가는 직행코스다.

처음 한두번의 연애는 내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에 즐거웠던 시기였고, 사랑에 빠진 자신을 사랑했던 것 같다. 연애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혼자 생각했던 탓에 정작 상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는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여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줄 알았다. 무거운 짐도 남자가 다 들어야 되고, 돈도 남자가 다 써야 하고, 그런 것이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착하고 멍청하게 수동적으로 보살펴지고 있는 동안 자신의 주체성은 없어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연애에 빠지고 난 뒤에 난 나 자신에게 많이 화가 났었다. 그래서 지금은 돈도 같이 내려고 하고(물론 지금은 나는 학생신분이라 그리 많이 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짐도 같이 들고, 힘들 때 어깨도 빌려주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야자란 것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 강박에 사로잡힌 남자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어깨는 얼마나 굳어있던지, '이 오빠가', '남자인 내가' 등등으로 목에 힘주어 주고 있을 때는 웃으며 폭박 치면서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말해주자. 그렇게 강박에 빠져있는 거 여자한테도 남자들한테도 안 좋다.

연애를 하면서 실수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던 것이다. 조금 호감이 있으면 서로가 어떤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귀는 것인지를 잘 모르던 시절 결론을 내려고 했다. 과연 어떤 사람인지 서로 맞는지 어떤지를 천천히 알아보는 쪽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다. 사귀면서 서로의 이미지와 실체가 달라서 얼마 못간 경우가 많았다. 그건 나에게도 힘든 부분이었고 사귀는 상대에게도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하기 다소 부끄럽긴 하지만 나는 예고도 좀 있고 외모도 그러저러 빠지지 않고 게다가 착하게까지 생겨서 첫눈에 호감이 가는 타입이다. (네, 저 자유분방한 공주뻥을 오래오래 알아오고 있습니다. 흑.)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진전되어 곧 사귀게 되었으나, 나의 정치적 상황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알게되면서 고민대라고 하는 통에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 헤어지곤 했다. 그쪽에서 나의 내면을 몰라주고 나의 걸 모습만 보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싶긴 하지만, 나 역시도 그런 내면의 소통들을 포기하고 있었다. 내가 바라던 사람은 부산대에서는 눈을 찡고 봐도 없었고,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한 탓에 전국을 포함하여 무척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지금은 찾았다...) 그래서 내가 내건 조건은 매우 낮았는데, 호감이 가고 착하기만 하면 된다. 였다. 미리부터 선을 긋고 시작했던 연애들은 당연히 지체할 소통이나 마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만남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참 우습지 않은가. 우리는 대체 서로의 무엇을 사랑했던 것일까.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나의 연애관도 많이 바뀌고 다듬어졌다. 이제 연애

를 잘 하고 싶다면, 첫째로 맞는 사람을 만날 것, 둘째로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할 것, 셋째로 서로 신뢰할 것 그리고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고 만남의 과정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권하고 싶다.

앞서 내가 착한여자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 습관을 깨기가 참 힘들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어도 특히 스킨십이 싫을 때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물론 지금은 싫은 것이 있으면 싫다고 말하려고 한다. 싫은 것이 있으면 싫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연애는 서로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편의 기분만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원만만 쌓이고 얼마 안가서 깨지기 마련이다. 그치만 의사를 충분히 밝혔는데도(물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자 쪽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던 전까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고, 남자는 널려있으며, 이런 사람이랑 오래 사귀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어느 영화에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연애에 실패한 거지 인생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연애를 하면 계속 사귀 수도 있고,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질 수도 있다. 헤어졌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다. 좋은 기억들이 있다면 끝까지 갈무리하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내 친구의 말처럼) 단지 헤어졌다고 그 연애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분류법인 것 같다. 사귀다가 결혼하면 연애에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헤어지면 연애에 실패한 것인가? 연애하는 순간에 충실하고 충만한 느낌을 준다면 그 이후에 헤어지게 되었다라든가 충분히 멋진 연애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나는 그간 내 실연담을 종종 친구들에게 명랑하게 말하곤 했는데, 아마 그런 까닭에 이 글이 내게 맡겨졌던 것 같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그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는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참 좋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추운 겨울 밤바닥을 거다나던 때에 연애를 하면서 그 폐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매우 바쁜 지금도 그 사람이 있어서 마음의 안정이 많이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랑이란 것은 매우 큰 축복인 것 같다. 그 많은 실연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의 연애를 이렇게 만족하면서 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사랑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멋모르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연애에 답이 어디있고, 누가 다 알고 시작하겠는가. 실연도 살아가는데 다 피와 살이 된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 하나만 붙들고서 용감히 연애를 시작하자.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고픈 사람을 발견했다고 달려가서 용감하게 그 사랑을 붙들시길. 따뜻한 봄날, 함께 꽃구경 살피는 것은 어떨까. 봄이 오는 날 우산 하나 같이 쓰고 길을 걸으며 활짝 핀 꽃들을 구경하면서 사랑을 키워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자가 남자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면 그녀는 그저 그의 공감을 원할 뿐이다. 비록 비합리적이더라도 그리하여 말하는 자신도 알고달고있다고 여기지만 그녀는 그의 공감을 원한다. 그가 그리하다면 그녀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불평들은 금세 잊혀진다. 그러나 남자가 그녀의 불평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잘못을 따지려 하면 결과는 언제나 둘의 싸움일 것이다. 여자는 자신을 남자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화를 낼 것이고, 남자는 그런 그녀에게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안녕! 두 남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면, 둘은 서로가 너무나 완벽해보이고 참 좋다. (물론 한 여자와 한 여자 그리고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

나이 적은 두 '남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시간이 주바랄수록 기대가 완벽하게 깨지는 것을 느끼고, 서로를 위하고자 했던 말에 서로가 상처받고 원망하기 일쑤다. 그리고 어느날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이별을 준비한다. 이 얼마나 익숙한 풍경인가. 비록 한쪽에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소리를 내걸려도 이런 관계는 정리되지 마련이다. 남녀의 관계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서로 다른 두 별에서 온 남자가 서로의 차이를 알고 있어 이성에 대한 실망이 생긴다고 말한다. 이 책은 여섯의 수라공과 마즈가장전비회원의 서로 다른 사랑법이 둘을 얼마나 어긋나게 하는가에 대한 물결과 어떻게 하면 서로의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 책을 완전히 읽으면 책의 이야기들에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감을 일으키는 막강한 힘은 이 책을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만약 당신이 그(혹은 그녀)와의 사랑을 원한다면 이 책을 강추한다. 진정한 사랑을 찾는 모험에 든든한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개 강한 지 며칠 안된 어느 날,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화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 노래를 듣거나, 오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들을 쓰다듬고,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럴 법도 하다. 애완동물과 그저 부대끼고 쓰다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정을 느끼게 되고 또 베풀게 될 것 같다.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연애에서의 스킨십(신체접촉)은 상대방의 마음에 VIXX만큼 빨리 도달하는 한 방법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마도 이러한 신체접촉일 것이다. 세상에는 섹스 파트너도 있고, 플라토닉 러브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애에서는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통해 교감을 하고 애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연인을 안고, 만지고 애무하고 섹스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겠지?

그런데 연애를 하는 동안에 이러한 신체접촉에 부여하는 의미가 여자와 남자는 다를 때가 많다. 남자들은 계단법칙이 좀 심하다고나 할까, 손잡는 것 다음은 포옹, 그 다음은 키스, 그 다음은 가슴, 그 다음은 엉덩이 하는 식이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애무를 더 좋아한다. (나만 그런가?) 물론 이러한 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인 사이에서의 이러한 스킨십이 반드시 평등한 관계와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

넌 사랑한다면..... 헤달리구?

문제는 연인 관계일수록 No라고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허락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넌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혹은 "넌 사랑한다면 이러이러하게 해줘."라는 등의 알랑귀리한 대사를 주워쥌었다. 이런 상황이 전제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육체적 관계의 문제이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윤인》에서 이병헌의 '기습키스'에 송혜교가 당하는 장면도 너무 낭만적으로 묘사된다. 현실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싫어'라고 얘기했을 때 남성이 불쾌해하거나 상처를 받는 것, 그리고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분위기까지 따라오는 이야기가 암묵적으로, 공개적으로 많이 쓰이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놈의 무드를 너무 중시한 탓일까, 무드 깨질 것만 같아서 그 상황을 그대로 참아 내는 경우도 있다. 이거 위험하다. 바로 데이트 성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트 성폭력이란 14세 이상의 남녀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발에 걸가다가 낚선 피혁에 의해서 당하는 것만인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연인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데이트 성폭력은 처음 만날 때부터 이성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

다. 사례에 따르면 1년 이상 사귀는 연인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문제였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안돼요"가 어떻게 "안.....돼요, 돼요, 돼요"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자들만 있을 때는 괜찮는데, 남자가 한 명이 라도 끼어있으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몸을 사리게 되고, 혹은 그 반대로 더 오버하게 된다. (남자가 있을 때 내숭때는 여자를 흔하든 재수없이 하지만, 시트콤 제목처럼 누가 이 여자에게 둘을 던지리오!) 이것은 어떤 경우는 이성인 한 명 끼어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일이다. 동성이 나를 보는 것과 이성이 나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의 몸에 대한 신호는 다르다. 때문에 남성의 경우 여성의 친근함을 성적 행동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나는 빨간불인데 너는 녹색불인줄 알고 건너면 결국 사고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양친하고 순종적일 것을 학습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어린 시절부터 강하고 딱딱있는 것이 남성다운 것이라고 학습되어 온 것도 데이트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리타분한 얘기고 하듯할 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한국 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지난 2002년 한해 성폭력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 피해 사례 중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이 76.4%를 차지했다. 이 중 데이트 성폭력은 전체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데이트라는 것이 자칫하면 사적인 문제라고만 치부해서, 연인과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경험들을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그것이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만 따져보아도 그 수치는 +α 될 수 있다.

행복한 연애를 위하여

연애는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평등한 관계를 추구해가는 상호보완이자 상호교감이다. 사실은 연애만큼 자신의 삶에 지속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문학작품의 모든 주제는 사랑과 이별이라는 말도 있듯이, (좁은 의미지만) 대학생들 속에서의 연애의 시작과 같은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러나 평등한 연애를 위하여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은 것 같다. 나이 차이, 지갑에 돈, 미묘한 감정의 경사 때문에 연애의 불평등함을 낳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성관계에서의 불평등이 낳는 일상의 파장이다.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연애의 몇가지 지침

* 한국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

IMAGINE(이매진)엄마와 딸이 자신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행



이매진은 능력있는 건축사인 엄마 마크와 '착한 여자'에 익숙한 평범한 사무원인 그녀의 딸 우유에 관한 이야기다. 43살이 되어도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엄마, 계속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엄마를 보는 우유의 마음은 불편하다. 딸이란 존재는 언제나 엄마가 여자이기도 한다는 것을 부정하며 자신만의 엄마로 있길 원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섹스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질린 우유는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을 찾기를 원한다. "난 집에서 나가겠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거야. 그 사람의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예쁜 엄마가 나한테 못해준 걸 다 해줄 거야. 아침에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집에 왔을 때 시골뜨기 않게 불을 켜고 기다려줄 거야. 그 예쁜 슬픔을 이기지 못할 땀 마스하게 안아 줄 거야"라고 소리치고 싶은 우유, 그러나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엄마대신 자신을 먹여 살려주는 사람을 찾는 것일 뿐이었다.

우유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에 열중하며 사랑이 아프게 깨어지는 것을 겪으면서 한층 성장한다. 그러면서 누구의 부인, 누군가의 엄마로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가는 바보처럼 힘겹지만 새로운 출발을 한다. 엄마 마크도 새로운 결혼을 선택하고, 의붓아버지로부터의 당당한 성적 학대의 상처를 극복한다. 엄마와 딸은 언제나 땀줄과도 같이 이어져있다. 그래서 마크는 우유의 미래이기도 하다. 사랑을 하면서 성장하는 자신을 느꼈던 사람이라면 이 만화를 읽으면서 추억에 잠길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싫지만) 남친이 좋아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삼겹살만 먹으러 간다가나, 싫은 것을 거절하고 싶지만 남친이 그런 자신을 싫어할까봐 말 못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만화를 권해주고 싶다. 사랑은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밝힐 때 서로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유가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 멋진 사랑을 가꾸어가길.

imagine(이매진 1-11권) 글 | 장몽

어떤 순결과 프리섹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남들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섹스가 내게 공포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자들에게 섹스가 중당시절부터 욕구와 호기심의 대상일지 모르겠으나, 여자들에게는 커다란 공포며 거부감부터 먼저 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 여성이 남성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 이해하고, 받아들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공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빠져 있었던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박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발광 까진 아니고 실지 않다는 나의 착한여자 콤플렉스도 한몫 했을 것이다. 오늘날 혼전순결을 당연히 하는 풍토는 많이 바뀌었다. 아니면 고딩 때의 나처럼 남들은 어떻게 해도 나만 순결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자유롭게 연애하고 섹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성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강박이 되어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싫다면 싫은 줄 알아!

때문에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맺을 때에는 반드시 서로 합의가 된 후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라도 데이트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제발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싫을 때는 싫다고 얘기해야 한다. 혹 연인이 사랑하는 데 이 정도도 못해주고 자신에게 요구를 하면서 이해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차라리 전지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고민해보기를 권한다.

성관계를 맺을 때 임신을 하지 않을 계획이든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피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그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이번 한번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다. 그러나 그렇게 성관계를 맺고 난 후에는 여성은 생리가 나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임

내 몸에 먼저 관심 기울이기

"그리고 나서 나는 욕망으로 들어갔지요. 내 몸에서 클리토리스를 만졌을 때 내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극 비자이나 모놀로그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성기와 욕구를 앓아 생각하며 살아왔던 한 할머니의 고백이다. 자신의 성기를 거울로 들여다본 여성은 주위에 몇 명이나 될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게다가 자위는 남자만 하는 건 줄 안다.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다.) 아, 그런 한편으로도 남성들이 보는 포르노 사이트에서의 여성자위는 얼마나 또 많은지. 남성들의 자위 방법은 꽤나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성들은 자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위가 별게 아니다. 그냥 잠자기 전에, 혹은 혼자 서 누워 있을 때 자신의 가슴이나 몸을 쓰다듬고 애무하는 것도 자위일 수 있다. 아무도 없이 편안한 공간에 있을 때, 분위기 좋은 음악을 틀고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애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천천히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기도 하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가 가진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커플진단 프로그램

평소의 행동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1) 비교적 빈번하게(2) 가끔 그렇다(3) 드물게 그렇다(4) 거의 아니다(5)

1. 내가 정말로 좋아하거나 매력을 느낀 남자가 주변에 있을 때는 평소의 나와는 달리 의사표현을 조심하고 상대방의 동의 를 구하여 나의 욕구를 희생하거나 본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다.
2. 나는 내 앞에 나타난 남성들에 대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해주어야 하는 것 처럼 느끼거나 행동한다.
3. 남자와의 관계에서 만일 여자들이 그랬다면 참지 않았을 방식으로 그들이 나를 대해서도 남자들이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참는다.
4. 나는 남자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 외모를 가꾸거나 짧은 차마를 입는 등 나의 성적 매력을 의식한다.
5.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나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 남자에게 말해야 할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6. 나는 남자들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일, 혹은 현재 나를 대우하는

방식에 대해 원망스러움을 느낀다.

7. 나는 남자들의 사랑이나 주목을 받기 위해 혹은 나에게 화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바를 물라 당황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게 된다.
8. 나는 내 인생에서 남자들로부터 마땅히 받을만한 모든 존경과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9.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언제나 요구한다.
10. 나는 강한 남자들(직장상사, 아버지, 권위있는 인물 등)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에게 공지를 느낀다.

점수 계산 방법

질문 1-7번, 10번의 경우

1은 2점, 2는 4.3점, 3은 6.5점, 4는 8.5점, 5는 10점으로 계산하고
질문 8, 9번의 경우 1은 10점, 2는 8.3점, 3은 6.5점, 4는 4.3점으로 계산하여 모두 합산한다.

BOX 음식

성관계를 맺을 시, 주의할 점!

1. 원치 않는 성관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2. 성관계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피임을 준비한다. (피임기구를 직접 구입해 보고 사용법도 익힌다.)
3.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피임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피임도 섹스의 일부라고 말해 준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남성에게 임신, 출산, 양육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묻는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과 한 생명에게 책임을 다하는 일인지를 함께 생각해 본다. 만일 그래도 애인이 피임하지 않으려 한다면 절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아예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4. 연애를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다면 콘돔이나 피임약을 늘 상비한다.
5. 콘돔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섹스할 때 콘돔을 쓰면 분위기 가 깨진다'에서 '섹스할 때 콘돔을 쓰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 좋다'로 바꾼다. 요즘엔 예쁜 모양의 콘돔도 많이 나와 있다. 콘돔을 예로 딱한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예로 딱하게 사용한다.
6. 섹스 할 때 외에도 일상 생활에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다. 저 여자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정말 아닌 거야라고 생각하게 말이다. 애매 모호하게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섹스 할 때도 자기 의사를 존중받지 못한다.

- 다음카페 '더 나은 선택' <http://cafe.daum.net/bcj>에서



나에게 '연애담'에 관한 청탁이 들어오다니. 연애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인 나에게 이런 주제의 청탁을 하는 걸로 봐서는 내가 '동성애자' 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구구절절한 실연이나 연애에 관한 가슴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 지 오래동안 망설여졌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만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이지 사람을 만나고, 호감을 가지고, 사귀게 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데 말이다. 사람들은 동성애자의 연애담이라고 하면 어떤 선정적, 충격적인 내용을 기대하거나 혹은 주변의 억압으로 가슴 앓이하게 아픈 사연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일대시며 내 파트너를 아주 평범하게 만나 평범하게 사귀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연애관계도 숨기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사회나 가족, 주변사람들로부터 눈 에 드러나는 억압을 당하기보다는 '드러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글의 청탁 주제가 어디까지나 '연애담'이었으므로 동성애쪽보다는 나와 언니의 '연애'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 나는 2001년 여름 무렵 동성애자로서의 내 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학창시절에 여자친구를 남몰래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며 마음 고생을 한 적이 있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꼭 남자에게 이끌렸기 때문에 나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대학에서 여성운동을 하면서 폭력적인 남성문화와 이 사회의 남성우월주의를 나름대로 치밀하게 경험했다. 나는 내가 원래 동성애자였는지, 양성애자였는지, 또는 이성애자였는지 지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내가 여성운동을 통해서 동성애자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때문에 호모토피아(동성애공포증)가 일반인보다 덜했던 것이 동성애자로서의 내 정체성 긍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여성과 여성의 관계, 나는 이성애적 관계보다는 동성애적 관계가 폭력이나 억압이 없는 일대일 관계에 더 적합한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중 2001년 여름, 부산에 있다는 여성 동성애자 모임'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당시 직장인 전라도에 있어서 친구들이 많이 있는 부산에 가끔 왔었는데, 나는 언니를 처음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호감만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 관찰'에 하는 정도의 호감 말이다. 모임에서의 만남이 몇 번 이어지면서 그 언니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격이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니가 나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어 인터넷으로 몇 번 채팅을 하게 되었고, 채팅을 하면서 속내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나는 언니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에게는 털어놓지 않는 속내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고마웠고, 언니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비슷한 종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고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언니에게 프로포즈하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언니가 있는 전라도 지방에 2주에 한 번 꼴로 가서 언니를 만났고, 언니도 부산으로 가끔 와서 나를 만났다.

언니는 자기 속내를 남에게 잘 털어놓지 않는 스타일이다. 나는 언니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 그래서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그간 폭력 뒤편에 있던 말로 내가 그들을 그리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언니가 술이 취해서 나에게 용서를 부릴 때라던가 할 때 내가 살짝 그 상처에 대해 몇 가지를 묻고 해서 부분부분 알아내곤 한다. 그리고 언니를 안고 토닥토닥 해 준다. 나는 언니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알고 싶고, 그것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지만 언니가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굳이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연인 사이라도 감추고 싶은 일은 있는 것이고, 내가 언니의 상처를 다 알게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치유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언니를 만나게 되면서 많이 웃었는데,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일 때가 많았고, 밀기져 않는 얘기했지만, 언니와의 관계가 나에게 너무 감사해서 온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연애는 보통 '일대일' 관계인 것이 전제되고, '일대일' 관계인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대일인 만큼 친밀하고 거리감없는 사이가 되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는 반면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나 집착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언니와 나의 일대일 관계, 내가 처음 맺은 그 관계가 너무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당시에 내가 외부적으로 상처받은 일이 많아서였던 것 같다. 내가 감당하기에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언니와의 관계에서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 언니가 나를 믿어주고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이 많은 힘이 되었다.

2002년 1월에 운 좋게 언니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3월부터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내 가족은 내가 언니와 같이 사는 줄로 알고 있고, 언니 가족들도 나를 언니의 '그냥' 후배로 알고 있다. 나와 언니는 가족에게의 커밍아웃(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문제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것은,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털어놓는 것은 아니지만 미혼으로 살면서 자신의 파트너와 잘 지내는 모습을 가족에게 꾸준히 보여주어 '서로

외지하면서 사이좋게 같이 사는 관계'로 가족에게 인정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호모토피아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선, 게다가 자식의 문제라면 더욱 물불 가리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좋은 경우를 다른 커플의 예에서 몇 번 보았기 때문이다. 서로의 가족에게 파트너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자주 하고, 명절 때는 전화로 인사도 드리고 선물을 드리기도 한다.

한 번은 명절 때 선물을 드리는 문제 때문에 언니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추석 때였던가. 언니는 집에 가는 나에게 '선물세트'를 하나 들려 보내면서 부모님께 드라고 하였다. 저금 일하는 곳 상사가 주었다고 하면서 드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 선물을 '언니'가 준 것으로 하고 싶었다. 그런데 선배 언니가 (당시에는 함께 사는 것을 부모님이 몰랐을 때였다) 명절 선물을 챙겨주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듯하여 '선배 언니가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 주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렸고, 그걸 언니가 화를 낸 것이다. 언니 말로는, 많이 들어와서 남는 걸 하나 주었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 좋겠냐는 것이고, 그래도 내 뜻은, 그렇게 해서라도 '언니'가 준 것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가 동성애 커플로서 겪는 문제들은 주로 이런 것이다. 서로의 관계를 드러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들. 이성애자들의 경우로 치자면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 자신의 부모나 친구들에게도 파트너를 소개하지 못하는 어려움. 좀 더 나아가 들면 비혼여성으로서 겪는 억압들을 겪게 될 것이다.

좀 이야기가 빳나갔는데, 아무튼 나는 지금 언니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편이다. 언니와 같이 산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다. 같이 살면서 말다툼하는 적도 있지만 우리는 성

와니와 준하, 서로의 상처에 다가서는 방법을 아는 연인들

와니는 애니메이션 원화부 작가이다. 반복적인 작업이 주를 이루는 원화부 작업에서 동화부로 옮길 때가 한참 지난 건만 선택의 여지없는 충고에도, 와니는 동화부로 옮길 생각을 하지 못한다. 와니는 달팽이를 무시하지만 정작 자신은 딱딱한 껍질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달팽이를 무척 닮았다. 이복동생을 감히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꾸짖려야 하기보다는 부모님 앞에 드러내려 했던 와니는 자신의 강장과 생각에 대해 솔직하고 대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뜻이 없는 대학친학을 하기보다 애니메이션 작가의 길을 택했던 것도 와니의 뚜렷한 주관을 보여준다. 와니는 그런 자신의 솔직함과 대담성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크나큰 불행에 겪어야 했다. 그 후로 와니는 달팽이가 자기 안으로만 숨으려 하고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모른다.

와니와 동거하는 준하는 시나리오 작가이다. 자신의 작품이 영화사의 상업적 의도에 의해 수정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와니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다. 준하는 언젠가부터 와니의 신강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준하에게 전치될 다정하지도 않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그러면서도 그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준하에게 한편으로 미안해 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크게 자리는 자신의 가슴 속 상처 때문에 준하를 배려해 줄 마음의 공간이 없음을 알기에 준하에게 미안해한다. 준하는 와니가 이처럼 변한 것이 와니의 이복동생이 유학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듣게 된 사정부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와니와 그 이복동생이 사춘기 시절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도 알게 된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준하는, 그러나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집무의 화산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복동생과의 이 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했을 와니의 아픔의 깊이를 가늠하려 한다. 그리고 와니가 과거 상처의 되새김질로 혼자서 힘들어하면서 준하를 배려하거나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와니의 마음속에서 이

격이 비슷하고 서로에 대해 잘 아는 편이라서 큰 오해나 싸움으로는 발전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사랑'에 대해 장미빛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오히려 관계를 변함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금의 안정적인 일대일 관계가 좋다. 그래서 언니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나는 '와니와 준하'라는 영화를 매우 인상 깊게 보았는데, '연애' 또는 '동거'의 관계에 대해 잘 묘사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언니나 동거는 열정이나 섹스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믿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나도 그렇게 언니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그래서 가끔 다짐한다. 언니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지, 나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자주 언니에게 말해야지, 언니를 내 것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지 등등...

나는 내가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정체성에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은 동성애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동성애자로서 살고 싶다. 동성애자로 살면서 힘든 점도 있겠지만, 나는 결혼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못지 않게 크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여성이 겪는 문제를 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동성애자로서의 어려움을 선택하더라도 평등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기 때문인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복잡하지 않게 생각했으면 한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이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그게 주어지든 선택한 것이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 부산 여성성소수자인권센터 www.womcenter.org

복동생을 지우거나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될 수 없음을 안다. 대신, 힘들어하는 와니에게 변함없는 믿음과 배려로 힘을 주는 일임을 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와니에게 억지로 과거의 일을 캐내려 하지도 않는다. 와니가 혼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와니를 만난다.

준하가 없는 며칠 동안 와니는 준하와 함께 생활하던 공간에서 혼자 잠들면서 과거의 상처를 자독하게 앓는다. 어두운 집에 혼자서 들어올 와니를 걱정하여 준하가 떠나면서 시간 예약을 해 놓아 저절로 커지는 TV를 보면서, 와니는 끼적끼적 운다. 이 울음속에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과, 자신을 변함없이 믿고 배려해주려 하는 준하에 대한 고마움이 섞여 있다. 혼자서 지내는 그 며칠의 시간이 와니에게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준하의 배려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둘은 다시 만난다. 퇴근해서 저녁 한 끼를 먹고는 와니를 찾아와서, 와니를 그렇게 다시 만난다. 와니의 준하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와니의 준하'에서, 사랑은 상대방의 상처에 다가서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결코 상대방과 영원히 합쳐질 수 없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상처 무상성의 삶을 자명하게 해주는 것이 자갈한 배려와 믿음, 관심이라는 것을. 그것이 사랑임을 말이다. 사랑이 보잘 것 없는 소소한 것이면서도 위대한 이유를, 이 영화를 보면 눈치챌 수 있다.

글 : 혜정



대학,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분명히 전리의 상어탑은 아닐 것이다.

못 새내기들이 눈을 반짝반짝 뿜으며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바로 대학에서의 자유로운 연애!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연애라는 것은 <남자셋 여자셋>이나 <뉴 논스톱>에서 보여주는 장밋빛 환상은 절대 아니니,

일찍잡치 거울을 켜뜨려야 할 것 같다.

달라고 말많은 그녀들이 들려주는 우리 도래의 연애이야기.

정리 | 고래 jara@freedail.com

고딩에서 대딩으로

딱눈샘: 고등학교 때의 연애와 대학 들어와서 연애와는 참 많이 다르잖아. 대학 들어와서는 연애에 대한 관심들도 더 높아지고, 자기 경험상, 어때?

돈탱: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솔직히 이상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몰려있던 것 같기도 해. 대학 와서는, 나도 그런 환상이 있었거든. 도서관에서 쪽지를 받고, 선배들이 대쉬를 하고, 미팅 소개팅 밥을 줄 일었는데, 현실, 그런 거 한번도 없고(웃음) 미팅은 고등학교 때 더 많이 했지. 고등학교 때야 억지로라도 이상을 만나고 싶었겠지만, 대학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소소현: 고등학교 때는 이상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 특히 공부 짜증나니까 심심풀이나 스트레스 해소로 만난 것 같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연애를 하기는 어려웠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게 좀 심하잖아. 대학 들어와서는 동아리나 과를 가도 소외감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서 연애를 하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의 인생에 치열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거야. 싸움도 많아지고, 연애가 깨지면 성공하든 뭐가 돌아볼 수 있는 게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뿐: 음, 맞아. 난 연애를 많이 한 편인데, 자나고 나니까 다 돌아봐지더라. 예전에는 동기고 전해서 친구처럼 사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인지 별로 긴장감이 없었어. 날 좋아한다고 해서 사귀었던 거니까, 내가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자만심이 있었나봐. 지금은 장거리 연애인데, 돈부터 시작해서 외모도 예뻐보이고 싶고, 나의 온갖 것들이 다 점검되는 거야.

돈탱: 나는 애인보다 남자친구들이 편하고 기대고 싶을 때가 많았어. 너무 편한 거 있잖아, 같이 방귀도 뀌고, 트림도 하고, 추한 모습의 서로까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연애에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필요하다고들 하더라. 그뿐: 지금 사귀는 사람을 처음 몇 번 만났을 때 애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얼굴만 보이는 거야. 긴장이 극대화된 거지. 그러다 한 번 전화통화를 하다가, 내가 아주 사소한 고민이 있었거든.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말을 편하게 하게 되었고, 긴장감과 친밀감은 조정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서로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자기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소소현: 평등한 연애라는 것은 상호보완인 것 같아. 자기랑 다른 점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사귀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내가 어리다고 쳐. 그럼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만 연애가 잘 될 수 있는 거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그뿐: 보통 연애에 대한 환상을 다들 가지고 있다가 막상 현실로 오게 되면 가장 크게

일시 | 03년 2월 28일(일) 4시

장소 | 총학생회실

함께 한 그녀들 | 소소현, 그뿐, 돈탱, 토기, 시마, 딱눈샘, 불쑥

(토기와 시마는 연애경험전무로 그녀들의 수다를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음)

깨지는 건 바로 돈 문제인 거 같아. 예전엔 보통 남자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통념이 있었잖아.

돈탱: 대학 와서 나이 차가 좀 나는 선배를 사귀었는데, 입학기 때까지는 선배도 집에서 용돈을 받는 처지였고, 가난한 데이트를 했지. 그것이 부끄러웠나봐. 나중에 선배가 취직하고 나서는 진짜 비싼데 데려가 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내면 그 사람에게 애속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

그뿐: 난 동갑내기들 사귀었는데, 걔가 좌회하고 용돈을 많이 받는 때는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줬거든. 그런데 그렇게 땀날 땀나다가 자기가 돈이 없으면 집에서 안나오려고 하는 거야. 여자들은 그래도 얼굴 보고 싶어하는데, 남자들은 돈 없으면 안 만나려는 것 같아. 여자들은 그러면 내가 싫어졌나, 오해를 하게 되잖아. 걔가 깨질 때쯤에는 보살핌이 있는지 자기가 해준 것들 받아내려고 하는 거 있지.

소소현: 나는 아무리 평등한 관계라 해도 권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돈 문제가 바로 그런 것 같아. 가정을 봐도, 경제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권력 관계가 달라지잖아.

딱눈샘: 남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이면에는 그런 거부정적 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소소현: 돈을 자기가 낸다는 것에 대해 스킨십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 내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좋은 곳을 데려가야만 갈래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는 걸 사주고, 뭘 해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 따뜻한 말 해 주고, 나를 좋아해주니까 좋다"고,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 없다고 많이 신경쓰는 거 같지는 않더라. 지금은 자기만 목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안하고, 반드시 비싸고 좋은 거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사회 생활 하면 먹튀기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겠냐고(웃음) 그러면서 나눴어.

돈탱: 난 또래 애들이 누리는 소소한 것들에 대한 즐거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캠퍼스 같이 걸으면서 커피 마시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밥먹고, 선배들 손잡고 노동동 지하철에서 끝까지 타보고 싶기도 했는데 그러지 못했지. 나는 내 나이에 너무 안 어울리는 연애를 한 것 같아.

소소현: 내 남자친구는 밥 먹고 계산할 때 항상 다보고 먼저 나가 있으려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서 푸른 같은 길 구해서 자갈에 모이든 거야. 나는 돈이 많아서 좋은 데 왔는 거 같았는데, 각종 쿠폰을 다 꺼워 놓고 찾아다니면서 먹은 거지. 처음엔 왜 이렇게 꺼지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좋더라. 영화관 가서 표 주면 오락실 동전 주잖아. 남자친구가 그 후로는 길 가다가 사람들이 버린 영화표 주워서 막 좋아하면서 모아두는 거야.(웃음)

돈탱: 너무 재미있었다! 매스컴이 진짜 문제인 게 드라마 보면 연애를 마치 공식처럼 보여주잖아. 남자가 멋진 차를 끌고 와서 이벤트하고 그러는 게 엄청 미화되고, 여성이 돈 하나도 안쓰고, 고생 안하는 게 아름답게 보이고 멋진 것처럼 나오니까 항상 기념 일만 되면 이벤트를 열어야 할 것만 같고.

소소현: 나는 남자친구한테 이번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릿 안줬거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인 거라. 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노, 딱 그러니까, 무슨 날만 다 가오면 딱 미치겠더라. 생일, 일주년, 5백일... 커플링 없다 그러면 커플링 없나 그리고, 남들이 다 하나씩, 비교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편히 더 멋있게 보아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지.

군대, 헤어질까, 말까?

그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문제도 참 고민이 많잖아. 군대 가기 전에 가슴적으로 고백했다가, 사귀는 경우도 있고, 군대 간다고 깨지는 경우도 있고, 군대 갔다 와서 연애관계가 많이 바뀌는 것 같다. 군대가 2년 2개월 동안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동갑내기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여자는 벌써 직장 가거나 준비하고 있고.

소소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작년에 애인이 군대 가서 깨진 사람 있거든. 군대 간 사람을 어떻게 기다릴까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 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계획이 없다고 여겨져서 깨진 경우도, 2년을 못 기다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다려서 나이 들어 깨지면 어쩌나 싶은 걱정 때문에 말아야. 그렇지만 난 이 사람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연애에 있어서 기본 마음가짐은 아니라고 생각해. 멀리 떨어져도 된다고 헤어져야 된다면 장거리 연애는 어떻게 가능하겠어?

딱눈샘: 남자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기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잖아.

소소현: 그러니까 내 말은 군대를 가기 전에 미리 헤어지고 말고를 결정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군대를 가기 전에 사귀고 말고, 혹은 헤어지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거나, 갔다 와서도 사귀는 거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런 문제는 사귀기 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니까.

신체접촉, 어떻게 생각해?

그뿐: 대학 들어와서 하게 되는 연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체 접촉이 아닐까? 적어도 광범하게 연애를 한 사이라면 말야. 신체접촉 어떻게 생각해? 나는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는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

딱눈샘: 나도 결백증 있었어. 연애도 섹스도 결혼도 안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돈탱: 나도 고등학교 때는 남자친구랑 키스했다고 그러면 미쳤다. 이라고 나보고 원연 기념물이라고 하기도 했어.

그뿐: 나도 첫키스를 대학 1학년 때 했는데, 이빨이 딱딱 부딪치는 거야.(웃음) 그때는 키스가 왜 좋은지 모르겠고 키스 하는 게 싫었어. 괜히 분위기 잡히면 도망가고 싶은 거야. 처음에는.

소소현: 키스까지는 요즘엔 다 상관없잖아. 사실 그다음이 문제지. 남자들은 계단 밟듯이 있잖아. 처음엔 손잡고, 다음엔 키스하고, 마치 통과리처럼 꼭 해야 될 것처럼 하나씩 가니까 내가 무슨 그 의식을 처리해야 될 대상처럼 느껴진 적도 있어. 1학년 때 자취를 했고, 장거리 연애를 했었거든. 그런데 남자친구가 오늘밤에 돈이 없으니까 내네 집에서 자면 안되나, 그리고, 술 먹고 계속 취한 것처럼 행동하고, 뭔가 작업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걔는 충분히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었겠지만, 준비가 안된 나로서는 무서웠어. 집에 일 있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뿐: 왜 살라고 말을 안했어?

소소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살라고 하면 남자들이 자기를 짐승같이 대하는 것처럼 느끼고 기분 나빠하거든. 그리고 거절하면 암묵적인 처벌을 하는 거야. 다음 날이 되면 무뎌죽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러면 나는 나대로 기분이 안좋지.

돈탱: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도 정말 원하느냐, 그런게 중요한

것 같아.

그뿐: 나는 최근에 사귀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그전에 많이 사귀어 봤으니까, 쉽게 전도를 나갔지. 그런데 나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거야. 내 거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

돈탱: 처음에 관계 맺는 게 힘들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여자 내 여자가 됐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여자도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남자에게 기대하게 되고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 남자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하면 불안해지고, 여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

딱눈샘: 난 결백증이 있었다고 했잖아. 여자들도 발기를 하는 줄 몰랐어.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만화책을 보다 흥분을 하게 된 거야. 그때 진짜 당황스럽고 내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이상했어. 대학 와서는 그것이 확 풀려버려서, 연애를 하면서 내 욕구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었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요즘엔 좀 바뀌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돈탱: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자애들끼리 팔짱끼고 그러는 게 어색하고 싫었어. 그런데 대학 와서 남자친구 사귀게 되면서 내가 바뀌는 것이 느껴지더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몸을 부대끼는 게 좋아. 내가 사귀었던 선배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웠지. 손잡는 것도 그렇고, 처음 키스할 때는 그 선배가 따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참 좋더라. 그러다 한번은 들어서 술이 많이 취했는데, 스킨십을 과도하게 하게 됐어. 그런 건 처음이라 내가 웃었거든. 그다음날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나고, 선배가 불편해지고 징그러더라. 그래서 천천히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합의가 되고 마음의 준비가 있고 난 후에 만나게 되었지. 헤어진 지금도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사람이 내게 함부로 대했다는 생각은 없어.

딱눈샘: 여자들은 보통 팔짱 끼거나 안고 싶거나 이런 게 좋은데, 남자들은 만지고 싶어하거나, 다듬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싫을 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만질 때마다 일일이 허락받고 한다는 게 조금은 우습잖아.

소소현: 내가 스킨십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생각해봤는데, 안 좋을 때는, 사람 많을 때, 술 먹고 할 때, 그리고 싸우고 나서 위로해준다고 할 때. 가족이나 알바아 죽었는데 스킨십하면 얼마나 기분 안 좋은데, 그걸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어. 내가 싫을 때는 정말 싫다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안 좋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뿐: 나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가 있어서 거부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었거든. 두 번째 사귀 친구랑은 꽤 긴 연애를 했는데, 걔가 더듬어도 싫다고 말을 못했어. 지금은 싫으면 싫다고 말하겠지.

돈탱: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나랑 키스할 때 어떨 때는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은 싫다. 이런 얘기를 평소엔 많이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싫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그런데 보통 연인들은 이런 것을 비밀스럽게 생각하고 잘 말 안하라는 것 같아.

C.C(캠퍼스 커플)들의 수난시대

그뿐: C.C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

돈탱: 땀날 붙어다니다가 친구 못 사귀고, 그러다 깨지면 자기는 친구가 없는 거지. 내 친구는 C.C였는데, 그 오후랑 땀날 밥먹고 공부하고 다니다가 헤어졌는데, 그나마 같이 수업했던 친구도 잘리고 사귀 친구도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거야. 그 오후는 과에 아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는 깨지고 나니까 과의 다른 선배들도 불편해지더라.

소소현: 주변 사람이 문제인 게 뭐냐면, 내 친구가 한 살 많은 사람이랑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B라고 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B 잘 있냐? 이런 것부터

물어보는 거야. 다들 맞다. 맞다? 무슨 고민이 생기든? 왜, B가 잘 못해 주냐? 잘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꼭 연애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불쑥 내 친구같은 경우에는 CC인데, 둘 다 인망이 좋고, 과 내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애였어. 남자가 군대를 갔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같이 다니면, 금세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한번은 군대간 남자 출신 학회 선배들이 여자한테 찾아오기까지 했단다.

그분 미쳤어, 연애는 개인 문제지!

소소현 어떤 과에서는 남자가 97인데 00학번 애랑 사귀다가, 거의 헤어질 무렵에 과의 02학번 애를 사귀게 됐어. 양다리를 걸친 거지. 그러니까 학번간의 갈등이 생겨버린 거야. 그렇다고 비밀리에 사귀면, 비밀리에 사귀었다고 생각해. 우리를 친구로 안봐 준다. 키스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속속들이 다 알아야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단다. **그분** 운동권에서는 연애 총화라는 것을 하잖아. 내가 사귀었던 사람도 나랑 사귀면서 연애 총화를 했는데, 어디까지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불쾌하고, 또 조직에서 연애 문제를 개입하는 건 정말 웃긴 거 같아.

불쑥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안에서 삼하게 삼각 연애를 해서 조직간의 타격을 줄 정도일 수도 있어. 삼각관계 여부를 떠나서 운동하면서 운동 안하는 애인을 사귄 때, 그게 심해, 운동을 그만두게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 그냥 모임에도 계속 가면 여자가 잘 못 나오는데, 운동권은 매일매일 얼굴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 부담

이크지.

광 그런 것은 개인들의 선택에 맡겨야지.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 깨닫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평등한 연애만들기

그분 연애가 평등하면 그런 속에서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텐데

딱눈썹: 마음의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평등하지 못한 관계는 여러 면이 있는 것 같다.

돈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다가 한 쪽이 직장을 제대로 잡으면 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의사가 굉장히 낯게 보니까 안된다고하고, 의사 같은 경우는 내조 잘하고, 그런 배우자를 찾고.

불쑥 법대 같은 경우도 사시 합격하면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연애할 때의 수준과, 불고 나서의 수준이 따로 있는 거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무나 사시 1차를 붙잡아.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미친단다.

소소현 우리 선배는 언론고시치고 나서 대학 다닐 때 연애하는 거랑 직장생활 하면서 여자 보는 거랑 보는 눈이 달라진대. 다 따져보는 거야. 권력 관계는 앞서 말한 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0· 연애하세요? 꼭 이요!

그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마치는 게 어때?

소소현 아무래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게 연애의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어.

그분 사랑을 하면 성장하는 것 같다. 한 인간이 그렇게 다른 인간에게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불쑥 사랑을 하면 인내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 같아.

딱눈썹 (엄정 공감하며) 그래, 그래.

불쑥 지금 처음으로 연애를 하면서 왜 그동안 연애를 못했을까, 후회가 되는 거야. 연애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연애를 자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돈뿔 어떤 연애 공식이라는 건 망구 필요 없어. 주위 사람들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의 나름대로 맞는 방식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연애 많이 하세요!



여백에 수놓은 사랑이야기 | 세기의 연인들

아름다운 그녀들의 사랑이야기 I

버지니아 울프 1882-1941 & 빅토리아 색빌 웨스트 1882-1962

버지니아 울프를 모르는 분 있으신가요? (동태로), (델러웨이 부인), (올란도) 등으로 유명한 작가이며, 또한 동성애자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여기서 (올란도)의 실제 모델이자 버지니아 울프의 연인이었던 빅토리아 색빌 웨스트와 버지니아 울프의 사랑이야기를 들어보지요!



비타와 버지니아는 1922년 처음 만난 만찬에서 상대방에게 매료됩니다. 비타는 (토지), (왕의 딸) 등을 쓴 유명 작가이며 사람들을 압도하는 육체적 아름다움을 지닌 자의식 강한 여성이었죠. 반면 버지니아는 예민하고 내향적인 성격의 여성이었지만 둘은 작가면서, 이런 시절 성적 학대와 가정적인 불화의 고통을 겪어 본 공통점이 있었죠.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잘 이해했고, 서로 다른 면에서 상대를 지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남편이 있었는데 특히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남편 레너드 울프가 감시하고, 경제

적인 면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타는 버지니아의 결혼생활의 한계점을 잘 알고 있었고 슬럼프에 빠졌던 버지니아를 복원해 주면서 그녀가 글의 영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버지니아 역시 비타에게 선택 작가로서 글쓰기에 도움을 주어 그녀의 재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이 (친구로서) 만난 기간이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기간이었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은 1년 정도밖에 지속될 수 있었지만 깨진 후에도 10년을 친구로 함께 합니다. 비타가 버지니아를 싫어하는 사누이 그런 세인트 어빈과 사귀면서 사이는 영영 멀어지게 되지만 버지니아는 1941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비타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너무도 잘 이해했던 두 여성! 물론 성적인 면에서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정서적인 면을 공유한 버지니아 비타 커플은 이성애, 동성애를 통틀어서 무척 행복한 사랑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남자를 페미니스트로 만들었던 그녀 I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 & 헤리엇 테일러 1807-1858

윤리책에도 나와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페미니스트이기도 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가부장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19세기에 이미 페미니즘에 눈을 뜬 남성인 존 스튜어트 밀은 그 자신만큼이나 특별한 사랑을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과 헤리엇 테일러는 밀이 24살이던 1830년에 처음 만납니다. 헤리엇은 밀보다 1살 연하였지만 이미 슬하에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존 테일러는 자유사상가로서 정치적 명명자에게 비난을 제공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존 테일러가 마련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회에서 용서받기 힘든 것이었고 밀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죠. 불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평생 배우자조차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던 시대에,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존 테일러는 헤리엇 테일러에게 관계를 청산하라고 했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아내의 역할을 다 한다는 조건으로 그들의 관계를 용인합니다. 존 테일러의 인내심이 대단한 것이었는지 존 스튜

어트 말해줬던 테일러 존 테일러의 기묘한 삼각관계는 존 테일러가 죽을 때까지 21년간 계속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결혼도 하지 않고 헤리엇 테일러를 기다렸고, 존 테일러가 죽은 뒤 2년이 지나서야 밀과 헤리엇 테일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밀은 헤리엇 테일러로 인해서 페미니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헤리엇 테일러는 자신도 뛰어난 재능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본 밀은 당대 사회가 얼마나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었던 페미니즘은 헤리엇 테일러로 인해 실재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핵에 걸리고, 1858년 겨울, 대수롭지 않은 감기 때문에 헤리엇 테일러는 죽어버립니다. 밀은 크게 상심했고, 그 후 1873년 죽음을 맞이해 헤리엇 테일러의 묘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됩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카미유 끌로델 1894-1943 & 오귀스트 로댕 1840-1917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연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카미유 끌로델이 사실 자신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술가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무도 유명한 남자의 연인으로 자신의 재능이 도둑 맞았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채 무너져 갔던 카미유 끌로델의 불행했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1881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파리에 유학하고 있던 카미유 끌로델은 마담 아담의 리셉션장에서 24살 연상의 로댕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카미유 끌로델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 조각계는 여성이 거의 없었고, 여성의 작품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죠. 반면 로댕은 (코가 일그러진 사나이)로 데뷔한 후 조각계의 새로운 바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카미유 끌로델은 로



댕을 위대한 조각가로 생각하여 존경하게 된 반면 로댕은 그녀를 단지 자신의 작품의 모델감으로 생각했습니다. 후에 카미유 끌로델은 로댕의 제자가 되면서 로댕의 작품을 만졌고, 곧 실력을 인정받아 거의 로댕의 작품을 자신이 만드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댕의 작품 중에는 카미유 끌로델이 만들고 로댕이 싸인한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서로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댕은 카미유 끌로델을 만나기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던 로즈 비레라는 여성과의 관계를 포기

하지 않았고, 카미유 끌로델을 사랑한다고 맹세했지만 정작 청혼을 거부해서 그녀를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비록 그가 카미유 끌로델의 재정적인 면을 뒷받침해주고 (예나 지금이나 예술의 길은 배고픈 것이긴 합니다. —) 그녀가 조각계에 입문하는 발판이 되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로댕이라는 그는 밑에서 카미유 끌로델은 사들이었습니다. 결국 로댕과는 결별하지만 그 후의 어려운 재정행권과 사회의 냉대는 건드리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카미유 끌로델은 정신병을 앓아 1913년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1943년 사망할 때까지 30년간 감옥 같은 정신병원에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던 카미유 끌로델과 그녀의 불행에 일조를 했던 로댕의 만남은 서로를(특히 카미유 끌로델을)죽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글 | 광상심

신용카드와 성매매의 공생관계

-진심으로 '믿고 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글 | 이석훈이 부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상담소 '살림' 사무국장 serena22@freechal.com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키는 말 중에 '신용사회'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의 총액은 853만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을 4500만이라고 하고, 이중 성인들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1인당 약 3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과연 '신용사회'라는 말이 통용될만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 요금을 6개월만 연세 시켜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무서운 '신용'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사회가 '신용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일까? 각종 언론에서 현재 신용불량자의 수를 추측하는 것만 해도 100만명에서 300만명까지 천문학적인 숫자가 왔다갔다한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 중 적어도 10명 중 1명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야기이다.

'신용사회'를 점검한다

과연 우리사회는 정말 '신용사회'인가. 가장 큰 문제는 발급에서부터 시작된다. 발급 자격은 무척이나 개방적이지만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의 크기는 그에 비해 너무 크다. 또한 이러한 제재에 대한 홍보는 각 금융회사들이 회원 확보 위주의 경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홍보에 비해 너무나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발급은 경제력이 없거나 부족한 이들에게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먼저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유혹으로 다가온다. 대학생의 경우 특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성인이면서 학생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대학생들은 소비에 있어서도 그 규제의 한도를 정하고 발급에 있어서도 규제가 깨다로워졌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신용카드에 의한 빚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특히 경제력이 있어서 아직은 너무나 취약한 여성들이 이러한 고리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카드빚을 갚는 법

여성들의 취약한 경제력에 비해서 여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터무니없이 크다. 카드빚을 지고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을 '자치하는 여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끊임없이 여성들을 고치고, 빼고, 바르고, 입게 만들어 소비하게 한다. 그리고 성인 여성들은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우리사회는 여성들에게 뛰어난 능력이 없는 한 불완전한 성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취업 여성들은 8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즉, 일의 강도는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은 받지 못하고, 노동 4대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보지도 못하고, 임금은 남성임금의 60% 밖에 받지 못한다. 거기다가 '신용카드'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는 신용카드회사들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시행하였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면,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카드빚이다. 이들 중에는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중 카드빚이 생기게 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은 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신용불량자들 중 절반도 되지 않는 여성들은 성매매로 업소로 유입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그만큼 돈을 선물로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즉, 선물금은 '윤락 혹은 2차'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받는 돈이다. 또한 빚이 작게는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이나 빚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그만큼 돈을 선택 내어주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 그들에게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란 '상품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여성에게 1000만원의 선물금을 주고 윤락업소로 데리고 갔다면, 그 업주는 그 여성에게서 최소한 한 달에 3000만원 가까운 순수익을 얻는다.

카드빚으로 시작된 성매매의 고리

일반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는 경로를 살펴보자.

한 여대생이 약 200만원 정도의 카드빚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자는 계속 불어만 가고, 연체된 돈을 갚을 길이 없었다. 결국 그녀가 생각해 낸 것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녀가 본 광고에는 '월수 200을 보장해 주고, 숙식을 해결해 주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할 수 있는 곳이라 되어 있다. 또한 그녀는 유흥주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물로 바로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은 유흥주점, 티켓팅방, 윤락업소들뿐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그 선물금은 성매매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녀는 업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 사장이 소개해주는 곳에서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머리를 하고, 방을 얻는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면, 물에 넣어주지 않거나 손님을 붙여주지 않아서 업주에게 진 빚을 갚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지각비(약 한 시간에 5만원), 결근비(약 30만원) 등의 부당한 벌금, 7부나 되는 이자, 업소를 옮길 때마다 내야하는 소개비(보통 300만원), 연대보증 등으로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빚은 2000만원을 넘어서 있다.

그렇다면 그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일까? 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 20조에는 이렇게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무효라고 되어 있다. 만약 이 여성이 상담소를 통한 건,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여 성매매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 여성의 채무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문제는 그러한 채무 중 상당부분은 아직 카드빚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에게까지 침투하는 카드회사

성매매업소밀집지역에는 카드회사 직원들이 찾아와서 업소를 방문한다고 한다. 아직 신용불량자가 아니면서 자기 회사의 카드가 없는 여성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업주에게 지는 빚 이외에도 또다른 사채와 카드빚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사채는 '썩이낸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불법이므로 여성들의 채무를 포기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소에서 일하면서 업주가 월급은 주지 않고 빚만 계속해서 쓰는 상황에서 현금이 아쉬운 여성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된다. 업주 또한 자신의 돈을 빌려주기보다, 전문적인 사채업자나 신용카드 회사를 이용하여, 만약에 여성이 도망을 가더라도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문제는 이러한 신용카드가 합법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되는 상황 속에서 진 빚이라고 하더라도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의 마지막 걸림돌인 카드빚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꿀맛이 절박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그들의 단맛을 광고한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실제로 그들이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왜 쓰는지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단지 시일이 되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신용불량자'라는 지우기 힘든 낙인을 찍을 뿐이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미 사회는 오래 전부터 그들에게 '윤락녀'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 속에서 다물어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제는 원인무효의 채무를 해결하고, 다시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에게 신용불량자라는 또 한가지의 굴레를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탈성매매를 하고 나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심하게 겪는다. 그리고 단기간 동안 성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사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변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채무액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탈성매매한 후에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짐이 된다.

진정한 '신용사회'를 바란다

이런 사회를 과연 '신용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신용 사회'의 시작은 신용카드 회사가 먼저 자신의 신용을 내 걸고, 카드를 홍보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를 믿고 이용할 수 있다.

카드회사는 무분별하게 개방적인 발급의 범위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상매매피해여성들이 상매매업소에 있으면서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 것은, 카드회사가 불법업소로 인한 채무를 얻어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가 각종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렇게 개방적인 발급의 범위에 비해 제재의 범위는 너무나 작다. 즉, 미성년자가 카드를 썼을 경우 그들의 부모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처럼, 상매매피해여성들과 같이 제재의 범위가 완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카드회사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신권면제를 재정비해야 하겠다. 먼저 카드를 쓰도록 만들어 놓은 후 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신용카드 회사는 과연 '신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겠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광고를 한다고 한다. 정말로 텔레비전을 틀어놓으면 생생한 배우와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신용카드 광고를 해주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갚을 수 있는 지 생각해 보고 쓰자는 광고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소비를 부추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그리고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 비해,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의료, 저소득층의 사회 복지 등은 국가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개인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의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신용카드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다.

자칫 잘못하면 내 지갑 속의 신용카드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격이 될 수 있다. 나의 것인 신용카드를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다. 단지 나의 능력만큼만 사용할 때 해결해 주는 편리한 물건임을 잊지 말자.

'신용카드' - '신용불량자'로 가는 특급열차

형의, 오펜의, 안니의, 누나의, 동생의 카드빚 때문에 잠이 안 잡혀서 잠이 깰까봐 걱정하는 이야기를 심심하게 들었을 것이다. 이들의 사회는 카드사용을 요구하고, 돈 써야 할 때는 많고, 사회보장은 저 바닥을 기며, 소비를 권하며, 가난을 떨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생긴다. 그리고 카드는 것은 후불제이므로 손쉽게 쓰이기 마련이다. 큰 고인없이 갚을 능력을 넘어서는 소비를 한 순간, 견줄 수 없는 카드빚의 고리로 빠진다. 그리하여, 신용불량자는 싸야 300원을 넘어 전국적으로 350만 - 500만으로 추정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예초 카드사가 경쟁적으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했던 시기에 카드 발급을 받은 일처럼 정말로 손쉽다. 단지, 5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대납을 마무른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제재는 그에 비해 혹독하다. 앞으로의 금융거래에 많은 불이익이 있으며(신용사회에서 얼마나 치명적인가), 당장에 돈을 갚으라고 오는 독촉전화는 몸과 마음을 모두 괴롭히게 한다.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대책마련이 요구되자 정부는 부라부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이곳에서 내세우는 신용회복제도는 너무 까다로워서 3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중에서 겨우 180명만 통과되었다. 반면 신용불량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신용사회구원 시민연대(신구연, www.cred815.org, 018-762-9944)는 2000년 사이트 문을 열고, 회원들의 신용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달 자부결정식을 연 부산지부의 한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

"신구연은 신용불량 걸려서 자포자기에 빠져 자살하거나, 범죄자가 안되도록 돕는 일을 한다.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카드사 측의 불법채권추심은 없어야 한다. 부산지역은 아직 파악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350만-500만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카드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고를 덧붙인다. "둘러타기 하지 말고, 신용불량자 걸려서 갚는 게 수다. 둘러타기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다." 앞으로 신구연은 세무활동보호, 재무자 권익활동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회원의 신용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외적 자재적 활동을 하고자 하며, 각종 법의제안 및 개정활동, 시민활동, 감시활동을 하고자 하며, 신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용회복이 되지 않도록 계몽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4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1/2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것임을 예고한다. 카드 발급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아울러 지금까지 발생한 카드빚을 벗어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완화가 함께 시급히 요구되는 사정이다. 카드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카드사용자의 입장에서 말이다.

윤락 혹은 2차 윤락이라는 말은 윤리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고, 윤락녀는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바친 여자 라는 뜻이다. 윤락이라는 단어에서는 성매매인 여성의 개념만이 들어있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뜻하고 나뉘는 말이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성을 사고 파는 의미의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되어있어서 부득이하게 윤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2차는 보통 유혹주점에서 하는 성매매를 의미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외상으로 경험된 만큼 심한 감정의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말한다. 즉 폭행, 강간, 홍수, 폭풍, 전쟁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한 충격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정신 장애이다. 이번 대구지하철참사의 생존자나 상동배화점 생존자들도 엄청난 PTSD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신체적, 폭력을 매우 심각하게 경험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여성들 중 96%가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 폭력, 강간 등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81%는 PTSD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학대, 우울, 인격장애와 같은 중복 장애를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PTSD의 심각성을 체크하는 연구에서는 베트남 참전군인이나 걸프전 참전군인보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 | 광동 alook@freechal.com

The women's News

일본군 성노예 문화제, "전쟁, 여성 그리고 성매매 - 일본군 성노예를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열려

생존전략 총아학회에서는 4월 1일(화)부터 4월 3일(목)까지 일본군 성노예 문화제 "전쟁, 여성 그리고 성매매- 일본군 성노예를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을 개최합니다. 이번 문화제는 그간 민족주의의 관점에서만 문제제기 되어왔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다루어 보며, 최근의 반전시위와 맞물려서 전쟁, 여성 그리고 성매매를 키워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4월 1일(화)에는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변영주 감독의 <낮은목소리> 세 번째 이야기인 <숨결>이 상영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 바로알기-그 진상과 해결 과제>라는 주제로 안이정선씨의 강연회가 열립니다. 3일(목)에는 본관 대회의실에서 할머니의 지나온 삶과 일본군 성노예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요, 공개 세미나 <2003, 일본군 성노예를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을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일본군 성노예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매매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유사성,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모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노예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2일(수)에는 <나눔의 집> 주최로 시청 일 불교회관 2층에서 할머니들의 그림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갈려감", "뭇다 핀 꽃" 빼앗긴 순정 등 할머니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그려낸 아름다운 작품들이 전시된다고 하네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일일 찻집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부산대 최초의 여성 교수회 결성!

부산대학교에도 여성 교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교수회 산하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2000년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교수의 현황과 지위 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부산대학교에는 100여명이 넘는 여성 교수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교수의 13% 정도로 국립 대학 중에서는 제일 높은 비율이지요. 그러나 신규교수 채용 시에도 남자교수가 우선시되며, 몇몇 건물에 여성 화장실이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부산대학교의 행정과 시설, 교수임용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비밀비해합니다.

여성특위의 조사 결과로 과반수가 넘는 여성교수들이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여성교수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고, 2002년 12월 12일 여성교수회(회장 국어국문학과 김정자, 부회장 생명시스템 전공 홍정희, 미술학과 전준자)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전반에 걸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학내 주요 정책에 여성인력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의 모색 등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교수회 산하 공식기구가 아니지만 곧 예산과 기구가 안정되면 여직원과 여학생 단체들과의 연대도 함께 고민중이라고 하네요.

돌아온 무법자, 서강대 K교수 복직 두고 논란

서강대 K교수 사건을 아십니까? 지난 2001년 대학원생인 여제자를 술자리에 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지요. 벌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고받음으로 해서 교수 성폭력 문제에 대해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K교수는 학교 측에서 내린 3개월 징계를 끝내고 이번 학기부터 강단에 복귀해 강의 시간표에도 없는 문자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 성폭력이야말로 학교 안에서 엄청난 권력차이를 이용한 악랄한 경우로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이나 논문심사 등 절박한 문제들까지 피해를 미치니까요. 피해 학생은 아직까지도 정신과, 피부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상처가 금에도 불구하고 K교수는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복직 후에 피해 학생의 연구실에 상주하겠다는 등의 간접적인 협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서강대 학생들은 성폭력 피해자 K교수 해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교수성폭력투쟁위원회대회에서도 공동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여는 등, 교수 성폭력 사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K교수, 황야의 무법자여, 영원히 떠나라!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하라!

금정산과 천성산 아래로 고속철도가 지나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당시에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시청 앞에서 진행된 내원사 지을 스님의 고속철도 철화를 위한 목숨 건 38일 동안의 단식이 없었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천성산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자주 엔터를 가곤하는 내원사가 위치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높이 있어 생태학적 보호 가치가 높은 산이지요.) 자연을 파괴하면 그보다 더 큰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국가와 부산시민을 위해서 고속철도를 건설한다고요? 그것은 이라크인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부시의 거짓말만큼이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시기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 공약을 낸 바 있고, 3월 8일 정계인 민정수석이 부산을 방문 부산노선 공사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교부에서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자연생태계, 문화자원을 희생으로 삼는 기존 노선은 백지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노선을 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노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중한 가치들은 행개친 채 경제적인 이익만을 따져왔던 우리들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난 뒤에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산에 살고 있던 생명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변명을 할 것입니까, 그때 후회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글 | 고래 jara@freechal.com 광동 alook@freechal.com



예비군 차량지원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이의 거리

글 | 정통 alokaj@freedail.com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벌어진 진풍경을 기억하시는지. 아마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선거는 다시 있기도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박빙의 승부로 오차가 표차보다 더 커서 제투 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일은 매년 그랬던 양성한 선거진행과 전혀 차이점 없는 두 선본의 공약 덕분이었다. 복지를 부르짖으며 우리pnu와 효원파란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예비군 차량지원을 내세웠다. 우리pnu선본(현 35대 총학생회)이 먼저 공약을 냈고, 이에 질세라 효원파란 선본이 이 공약을 냈다. 점심 제공 문제로 양 선본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을 뿐, 이 공약은 무사히, 환영을 받으며 올려졌다.

당시 나는 예비군 차량지원이나 각 단체 생리대무상지급, 우리pnu카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선본을 보면서 머리가 다 지끈거렸다. 특히나 선거시기 반전평화적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또한 이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도적인 활동을 해왔던 우리pnu선본측에서 '예비군 차량지원'의 공약이 먼저 나왔던 것은 심한 충격이기도 했다.

지금 예비군 훈련이란

사실 군대 다녀온 것도 역을 졌는데 8년간 평균 30시간의 예비군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통터지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후 45세까지 일년에 하루를 꼬박꼬박 가야 하는 민방위 훈련 또한 기다리고 있다) 물론 대학생이 경우 하루 바깥 8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긴 하지만, 가서 하는 일일이 매우 재미없고 쓸모없이 하루를 보내는 기분은 영 찜찜하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돈이나 나오면 모르겠다. 하루종일 있어도 겨우 2500원이 지급된다. 것도 올해 500원 올라서 그렇다. 점심 밥값은 고사하고 차비도 안되는 돈이라, 누군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두세가지 것들

양심적 병역거부는 몇 년 사이 대학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지금의 전쟁반대와 군대의 현실적 변화와 평화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함께 하며 급속히 퍼지고 있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시기 전국에서 선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 초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도를 요망한다는 공문을 각 대학으로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 발상 자체는 우습지만 우리는 이 예프닝을 통해 양심적병역거부가 매우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conscription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는 양심의 이유로 징검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양심적 집총거부라고도 하는데 거의 같은 말이라 보이도 무방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쟁 일반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절대적 병역거부와 군대내 특정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 전쟁을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민간봉사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을 완전거부자 또는 이중거부자라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구금 또는 투옥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요지는 양심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기술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총을 들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지난 시절 사회의 시민 냉대 속에서 감옥에 수감되는 일을 묵묵히 겪어야만 했다. 그들은 감히 군대를 거부한다는 패권까지 붙어서 3년 이상 7년에 이르기까지 감옥에서 해야 했다. 그들 대부분이 여자와의 중인이었으나 타 종교와 사상적인 이

는 차라지 주자나 말라고까지 말한다. 강제력은 대방 놓고 밥값, 차비, 일 못해서 오는 손실 다 개인부담이다. 동원훈련 한번 빠지면 달날 마리고 발조치 들어간다니, 것도 형사입건 되거나 벌금을 물고 난 뒤에 다시 훈련받으러 가야한다니 참 알뜰했다. 영화 <라이터를 켜라>에 우리의 어리버리 봉구 허봉구는 밥값이 없어서 식사도 못하고 차비가 없어서 집에도 못간 채 훈련장 일을 서상인다. 그리고 담배 빌리고, 차 얻어타는 바람에 예비군제도가 미쳤다고 떠드는 분노에 찬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있어야 했다. 돈만 군에서 제대로 지급했어도 이런 비참한 일을 없었을 것이다. 한편 영화 <돈을 갖고 튀어라>의 주인공 천담수는 친구들의 동원예비군훈련을 대신 뛰어주고 용돈을 벌기도 한다. 참으로 영화 같은가? 실제로 대타 뛰기가 상업을 했던지 육군은 99년 3월부터 예비군 훈련

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등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근대사의 아픔을 겪어오면서 군에 대한 신성시와 피해의식의 이중적인 감정이 매우 뿌리깊게 박혀있어서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배치될 수 있다며 위헌소송을 냈고, 자금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의 양심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군대복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체복무마련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군사적 긴장관계가 비슷한 대만도 200년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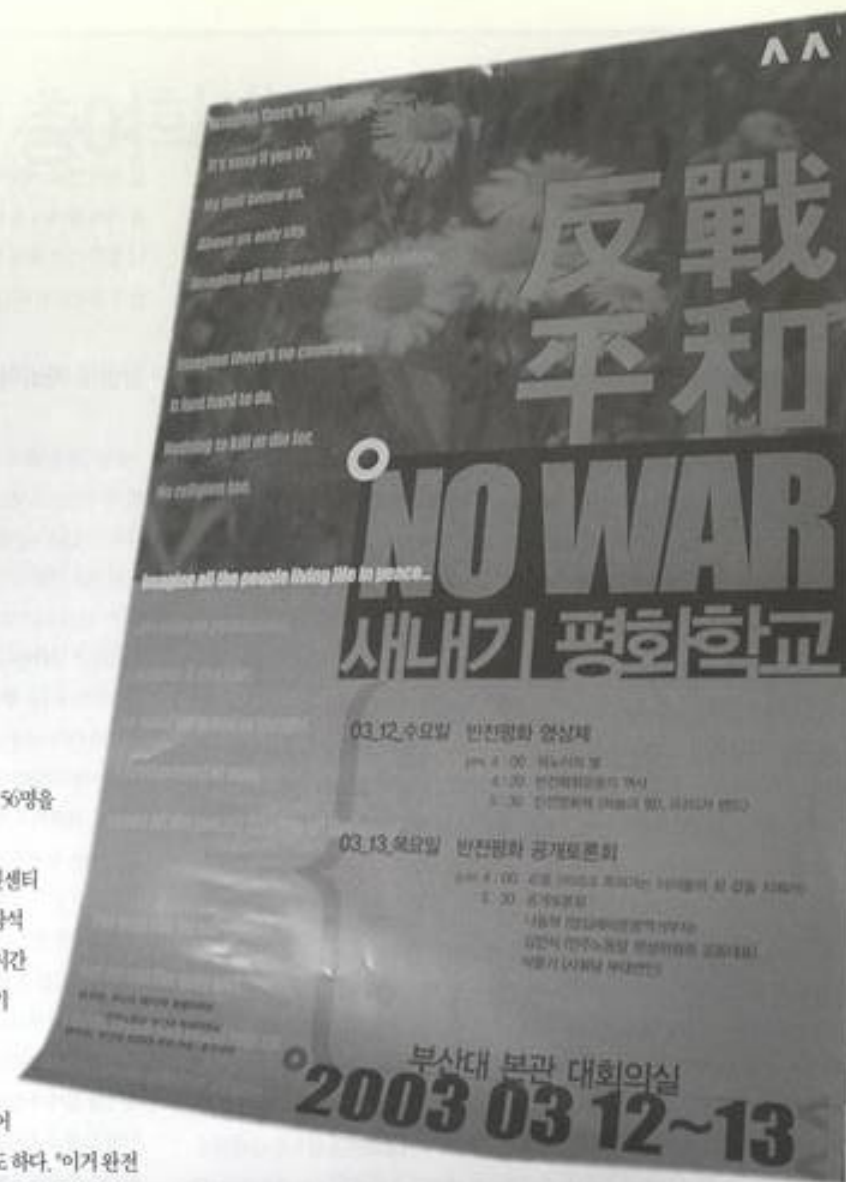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당신들의 양심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겠다는 소극적인 동참이 있는가 하면, 반전평화의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동참한다는 적극적인 지지가 있다. 전자는 비록 자신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뜻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비인도적으로 감옥에 감금되는 것들을 반대하고 대체복무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 후자는 반전평화적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35대 우리pnu 총학생회는 후자로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전평화적 관점에서 지지한다는 말과 함께 일인시위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고, 올해 3월 13, 14일에 열었던 반전평화 새내기평화학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토론회를 연바 있다.

대리입소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대리입소자 및 대리입소 의외 예비군 50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그 해 7월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러가기 싫어했으면 '예비군 훈련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까. 올해부터 3년 연속(간부는 5년 연속) 기본훈련에 참석한 자(일명 우수 예비군)의 경우 2006년 이후부터는 향방 기본훈련을 8시간 면제하고 무단 불참자는 보충훈련 시 '벌칙성 훈련시간 증가'를 시행하기로 했었다. 이리코를 예비군 훈련은 가고싶지도 않고 엉성하기 그지없다. 감히 말하건대 예비군 훈련은 퇴역한 장교님들과 고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 하겠다. 그러니 <라이터를 켜라>에서 어리버리 봉구에게 열면을 토해내던 이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이해가 될 법도 하다. "이거 완전 허미친 것이예요. 남북정상들이 오고가고 천만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관국에 땀 말라비 붙어선 예비군이예요, 예비군이. 군대에서 3년 동안 땀땀이 시켰으면 됐지, 왜 바쁜 사람 왔다갔다 이 개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개고생을."

양심적 병역거부와 예비군 훈련차량 지원의 거리

그러나 이런저런 실행단계의 불미스런 점은 제쳐두고 한번 생각해볼까. 예비군 훈련의 본질은 무엇인가. 군대의 연장선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의문스럽다고는 하지만) 살인의 기술을 까먹지 않으라고 되새기는 곳이 아닌가. 그런 곳에 편안하다니오 시라고 차를 지원한다? 그건 군대 잘 다녀오시라고 차편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군대까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군대가는 사람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차편을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웃겨도 심하게 웃긴 것 같지않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한다는 구호와 예비군 차량지원은 서로 모순한다는 것을 진짜 몰랐던 것일까, 아님 알고 있으면서 표를 의식해서 그랬던 것일까. (후에 총학생회분들과 이야기한 결과, 진역로 몰라서 그랬던 것이었다. 진짜 소경했다.)

중앙운영위에서 정식으로 예비군 훈련 차량지원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을 때, 총학생회가 차량지원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단 하나있는데, 바로 '학우들이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별로 까리한 예는 아니지만) 만약 학우들이 수업을 반으로 줄이기를 원한다면 줄이겠는가? 아니지 않은가, 각각의 기준과 원칙이란 것이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학우들이 원하는데, 라고 똥을 밀고 나간다면 그건 포퓰리즘(대중인기형 합주의)에 다름아니다.



예산상의 문제들

이 공약에 대해서 총여를 위시한 여성주의자들 중심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남성분들이 다시금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계보를 접수했는데, 그런 분들께 이것이 매우 비효율적인 공약이라는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여성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혹은 울 학교 여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날로 시끄러워지는 통해) 지난해 총학생회선거 각 선본에서 여성정책이란 것이 따로이 한 색선으로 만들어지는 눈물겨운 장면을 연출하였으나 고민의 수준이 낮았다고 판단되는 공약이 많았다. 그 중에 특히 우리(pnu)에서 냈던 각 단체 생리대 배치는 예비군 차량지원과 딱 똑같다. 지난해 핫이슈였던 생리대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생리대를 무상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다.

물론 생리대 지원을 한다면 여성들은 참 좋다. 나부터도 통나는대로 단대에 가서 몇 개씩 슬쩍 가져오겠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으나 한번 생리할 때 드는 생리대는 기본 10개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20개도 필요하다. 거기다가 생리대도 엄청나게 비싸다. 한달하고 나면 5000원은 기본이다. 그것을 달달이 한다고 생각해보라. 공적일 때 일찌구나 많이 받아서 집에 쌓아두고 싶지 않겠나? 각 단체에 놀상 비치되어있다는 것을 알면 많은 학생들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누가 언제 몇 개나 가지고 가는지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알면 어느 기업이 일년 내내 스펀을 해주려고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 많이 가져가지만 약속은 지켜야하고 스펀은 안 배지고 그런 또 복지예산으로 끊어야 된다. 그 많은 예산을 소비재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소모적이지 않나? 오히려 그 문제의식을 살려 월경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열어 그 안에서 생리대의 이야기를 녹여내던가 하는 시도가 훨씬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예비군 차량지원으로 돌아와보자. 예비군 차량지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예비군 훈련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면 그 항목을 조목조목 따져서 이슈화하고 원칙을 내세워야 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예비군 훈련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활동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량지원에 드는 돈 만만찮다. 약 삼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 공약은 절실해공까지 하면 천만원이 더 많은 사전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삼천-사전만원이 왜 장난인가? 총학생회 일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총학생회 예산의 약 25%에 육박한다. (물론 이 돈은 총학생회 예산이 아니라 총학생회의 입장이 강하게 어필하는 매년 1-2억 정도 책정되는 복지예산에서 내려한다고 한다) 것도 갈 때마다 돈이 들어가고, 매년 지불해야 한다. 우리 제발 예산 그렇게 함부

예비군을 찾아서

예비군은 1968년에 창설되었다.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27일이지만, 개정을 거쳐 실제 실시된 것은 1968년이다. 이 해 1월 21일 김신조 등 이복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가습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박정희는 향토예비군 25만을 무장할 계획을 세워 예비군 창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 4월 1일 발대식을 한다.

68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의 임무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있다. 계속해서 개정이 있어왔고, 1988년 12월 개정안에서 "무장소요가 있거나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이라는 항목도 추가된다. 실제로 91년 5월 9일 강경대 치사살인사건 이후 학생시위가 격화되자 서울지역의 일부 예비군 동대에는 "소요진압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전 부대는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이 일부하달 되었다. 다행히 예비군이 사회관입을 위해 투입되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법률상 시위관입에 동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채로 남아있다. 할 일없는 예비군에게 줄 임무를 관리하던 정부는 1991년 4월부터 9월까지 예비군을 방

로 쓰지 말자. 예비역들의 피해측면에 주목하면서 공약을 낸 것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돈을 적게 들여서 훨씬 더 유용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소모적인 곳에 돈을 지불하니 훨씬 다른 곳에 돈을 돌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 차량 지원을 할 것이면 그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내야 한다.

정말로 예비역을 걱정한다면

예비역들은 대개의 경우 국가의 강제적인 부름에 의해 군대에 다녀온 것에서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보상도 없이 무상으로 2년 2개월(현재)을 보내왔다는 사실에서 피해자로 바라볼 수 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군사문화를 풀어놓으며 사회적인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다분히 가해자의 측면이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들이 희생했었다는 것은 자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예비역들에 주목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군대에 다녀온 주변의 친구들을 둘러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몇 년간 손에서 떼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학교에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예비역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쏟았다면 그 예산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도 위배되지 제도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바뀐 학제를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재안을 학교측에 하여 실무적인 일은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내분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경직되고 국방색 뚝뚝 떨어지는 그네들을 재사회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제대할 때 의무적으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예비역에 대한 학교차원의 배려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예비군제도의 개선 내지는 폐지를 함께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신념과 활동사의 엄청난 거리를 줄여서 제대로 된 공약을 내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의 실효성없는 공약을 철회하길 바라면서 우리의 어리버리 봉구 하봉구를 귀찮게 하던 사람의 울분에 찬 말뚝을 빌려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거 완전히 미친 것이예요. 예비군 폐지를 주장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뭘 말라비틀어진 예비군 차량지원이예요. 예비군 차량지원이. 반전평화의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지지한다면서 예비군 차량지원 한다고 해서, 왜 바쁜 사람 이 글 쓰는 개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개고생을."

법활동에 동원하기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무려 87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되어 37명의 법인을 검거하는, 예비군 2만 3천여 명당 잡범 1명 검거라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예비군은 지휘관과 연결된 종교행사에 동원대상이기도 했고, 예비군 훈련장은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가족계획을 달성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세운 정간수술의 현장이기도 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경우 재미있는 휴가지만, 자영업의 경우 가게문을 닫고 장사 공을 차야 한다. 90년대 초반 국방연구원은 예비군 제도로 인해 일할 사람들이 생산현장에서 유리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1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4월 첫째 주 토요일은 향토 예비군의 날이다. 올해로 36살이 된 예비군 훈련 김양삼과 김대중이 이미 30여년 전에 폐지를 주장했던 예비군 훈련은 실효성에 많은 의문모르표를 달아왔으면서도 아직까지 견제하다. 바대하고 비효율의 극치인 예비군의 기를가를 펴면 날은 대세 언제인가.

글 | 정통 alosky@freechal.com

2003년 생존전략 총여학생회 상반기 예산안

수입

학생회비	4,700,000원
학교 지원금	20,000,000원
합계	24,700,000원

지출

일반사업비 - 4,700,000원

1. 활동비 2,400,000원

50,000원 × 6(팀) × 8(개월)

2. 총여학생회 운영비 2,000,000원

사무용품	500,000원
선전	500,000원
유인물	500,000원
신문도서	500,000원

(〈한겨레〉 1년(2부) 240,000원. 〈한겨레21〉 120,000원. 〈IF〉 20,000원. 〈여성신문〉 120,000원. 도서구입 80,000원)

3. 연대사업비 300,000원

특별 사업비 - 13,360,000원

1. 진로·취업 네트워크 1,400,000원

상반기 취업강연회 1,200,000원

강사섭외비	600,000원
포스터	400,000원
자료집	200,000원

2. 재학생 졸업생들의 정보-도움 커뮤니티 구축

만남의 자리	200,000원
홈페이지 제작 운영	600,000원

3. 소모임 자원비(예산 10%) 2,000,000원

4. 일본군 성노예 문화제 1,460,000원

포스터	660,000원
자료집	200,000원
패널	50,000원
강연료	150,000원
할머니	300,000원
준비단 운영비	100,000원

5. 군대 문화제 2,000,000원

포스터	600,000원
자료집	200,000원
준비단	100,000원
기획행사비	2,000,000원

6. 〈Herstory〉 5,000,000원

4호	3,000,000원
5호	2,000,000원

수입총계	24,700,000원
지출총계	18,060,000원
합계	6,640,000원

내가 만난 나혜석 - "나의 삶이 걸작이 되고 싶어요!"

글 | 고래 jara@treechal.com

나

혜석, 그녀를 두고 백년을 앞서 산 여자라는 말을 한다. 최초의 여성 서양근대화가로서, 문학가로서, 일제 치하, 조선의 개화기를 불꽃처럼 살아갔던 여자. 계몽된 지식인으로서 여성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외쳤던 그녀는 대한민국 근대 여성사에 너무나 뚜렷이 새겨진 선각자다. 혹자는 결혼 후에 최린과의 연애 사건으로 이혼당하고, 사회의 온갖 비난과 논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행려방자로서의 비참한 말로에만 흥미를 보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 만난 그녀는 사진 속에서처럼 반듯한 차림에 또렷한 눈빛을 가진 근대 개화기의 신여성이었다.



"나혜석은 근대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미의식에 얽매어 있었다. 그녀는 서양화 기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미의식에 얽매어 있었다. 그녀는 서양화 기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미의식에 얽매어 있었다."

젊은 시절 최승구"와의 연애가 유명했지요.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신다면.

"도쿄에서의 유학 생활 당시 나는 미술과 문학 양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지. 그 당시 지식인 청년이었던 최승구, 이광수, 염상섭 등과도 교우하게 되었는데, 최승구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우리 둘은 사랑하고 있었어. 그러나 그가 폐병으로 죽고 말았을 때에는 나는 거의 반쯤은 미쳐 있었지. 나 자신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았기에, 아픈 그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려야 했어. 훗날 신혼여행길에 그 사람의 묘지에 비석을 세웠지. 내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기에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의식의 하나였다고 봐도 좋아."

당신에게 있어 그림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 생활 중에서 그림을 제해 놓으면 실로 살풍경이나 다름없었어. 사랑에 목아를 때 정을 느낄 수도 있고, 친구가 그라울 때 말뼌도 되고 귀지 않을 때 즐거움도 되고 괴로울 때 위안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림 뿐이었지. 내가 그림이요, 그림이 내게 되어 그림과 나를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였어."

유화 뿐만 아니라 판화나 삽화를 보면 만화 풍의 그림도 많은데, 재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업" 아사의 사생활을 만화로 그리기도 했었지. (웃음) 나는 원래 천성이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 하는 것마다 재미나서 건달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 내가 썼던 소설 <경화>에서 동경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 경화가 바로 나의 경험과 내면이 그대로 녹아있는 인물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죽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하고, 그러면서도 태연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그런 천성 때문이 아닐까 해. 내가 선택한 일은 기쁨으로 다한다는 것이 나의 인생관이기도 해."



김일업 아사의 사생활 (김일업) 4.1920. 6

당신은 그 시절로서는 일본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와 그림을 지속할 수 있었던 성장 배경이 있다면.

"나는 운이 좋은 편이었지. 내 의사를 존중해주는 아버지와 나의 동경 유학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오빠가 있었으니까. 보통은 재집에가 무얼 하겠느냐고 어린 짝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 대부분의 여성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입습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아무리 여성의 적은 여자라고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함께 해 나가야 할 동지이자 자매라고 생각해. 이광수의 소설 <무정>에 나오는 신여성 김선형을 봐. 최고의 교육을 마친 여자인데도 아버지가 정해진 혼사를 아무 말없이 따르고, 이런 모습들로 인해 그간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어 있었지."

그림이라고도 소설, 희곡, 시, 에세이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했잖아요. 글쓰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글쓰기는 나의 생존전략이자 해방의 전략이었지. 내가 살았던 시대의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규범은 '현모양처'론이었어. 그것은 조선시대의 삼종지도의 조그만 변형에 불과했지. 내 생각에 현모양처론이라는 것은 교육자들이 상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며, 온양유순이란 것도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내가 가지는 고유의 경험들과 감상을 풀어냄으로써, 나와 같은 여성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내 목적이기도 했어. 나의 이러한 여성적인 글쓰기를 두고서 비판한 독자들도 여럿 있기도 했어."

결혼생활은 어땠는지.

"나는 누구보다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면서 최가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 현모양처를 반대했지만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펼치고 싶었던 사상이 몇몇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만큼 내게 있어 나의 신념과 예술은 절박한 것이었으니까."

내가 결혼했던 김우영" 그 사람은 착한 가부장이었지. 그러나 나의 내면을 이해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적 동반자는 아니었어. 게다가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인가? 사이머니와 시누이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믿어왔던 결혼 생활의 이면에는 아이 걱정, 반찬 걱정, 옷 걱정, 빨 걱정, 나무 걱정, 더럽고 겉으로 속이 좋아하는 하인과의 싸움에서부터 손님 맞이, 친척에 대한 의리까지, 하나하나 모두 나를 위하여 살아야만 하지."

결혼 후 안정된 생활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려고 할 때 첫 딸을 낳아 키워야 했잖아요. 처음 임신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이를 임신했다는 처음의 느낌은 끔찍한 그 자체였어.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온몸이 오작동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덜컥 임신을 해 버렸으니까, 기쁘기는 커녕 수심에 싸이고 가슴판 태웠지.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곧 태어난 아이에 입힐 옷을 지어놓고 방바닥에 펼쳐놓고 보는데, 어서 속히 나와 이것을 입어 보았으면 얼마나 고울까, 사랑스러울까 곧 궁금중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 진정으로 아이의 얼굴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 그래도 애를 낳을 때는 너무도 아파서 스케치북에 그 아픈 심정을 시로 쓰기도 했지. 아이를 4명이나 낳았더니!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네."

모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모성애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음 속에 준비된 것이 아니야. '웃는 정'이라는 것은 자연성이 아니라 오히려 가연성이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거야. 모성애는 여성에게 최고 행복인 동시에 최고 불행한 것이지. 여자가 자기 개성을 잊고 살 때, 모든 생활 보장을 남자에게 받을 때 무한히 편안하고 행복하겠지만, 여자도 인간을 주장하고 개성을 발휘하려고 하면, 남자만 믿고 있지 못할 생활전선에 나서게 되었을 때는 무한히 고통이요, 불행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세계를 오랫동안 여행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후에 삶이나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지. 그 고민은 세 가지 정도로 좁혀졌는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화합하게 살 수 있을까, 유럽과 미국의 여성의 지위는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들이었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나 몰랑 부인과 같은 여성운동가들을 보면서 조선 여지도 사람이 될 욕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지. 자기 소유를 만들려는 욕심이 있어야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열심히 활동할 욕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최린과의 연애가 당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최린과는 파리에서 만났지. 나의 예술을 이해하고, 영혼을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어.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없었지만 그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 귀국하고서 연애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지. 조선의 남성들이란 이상하기 짝이 없어. 자기는 정조 관념이 없으면서 차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하지.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싶어. 남자는 이성적일고 자도 관계 없다는 당당한 권리를 가졌더니 사회제도도 제도지만 그 물질적인 태도에는 웃음밖에 안나오지."

정조란 도덕도, 법률도 아닌 오직 취미일뿐이야. 밥 먹고 실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실을 때 떡 먹는 것과 같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일 뿐이지.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은 아니지. 우리는 이 정조란 것을 고수하기 위하여 나오는 웃음을 참고 끄는 파를 누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지. 우리의 해방은 정조의 해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봐."

이혼을 한 후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이혼 고백서>, <신생활에 돌면서> 등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다면.

"자신 할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물 속에 빠져 죽으리라는 결심까지 했었지.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피폐해 있었고, 물질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서는 다더욱 힘들어졌어. 그렇지만, 내 사상과 생각까지 전할 수 있는 없다고 생각했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여성도 그런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혼을 하고, 최린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나서는 여성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공론화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야. 나는 내 사상에 대해서 몇몇할 수 있었으니까."

오늘날의 사회를 여성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남성들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을지, 놀라워. 아직도 정조를 남에게서 뒤흔어내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해. 내가 활동할 당시에는 내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줄 만한 사람이, 그것도 같은 여성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

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대생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

"안정된 삶에 안주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 나는 나 혼자만의 공상을 즐기는 시간들이 많았지. #이념에서도 이런 저런 상처들로 소금에 축 늘어진 배추마냥 기운없이 지낼 때도 내가 어떤 여자가 되고 싶다는 이상만을 죽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남들이 이상으로 대할 때 나는 감자로 대하자, 남들이 정의로 대할 때 나는 우이로 대하자. 결심을 많이 했지. 그러한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어떠한 여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상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글은 나혜석이 발표한 소설, 에세이 등을 토대로 하여 꾸민 가상 인터뷰입니다."

최린 "친도고 지도자였으며 31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프랑스 파리에서 나혜석과의 연애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훗날 친일 행위로 반인륜죄로 사형이 된다."

최승구 "나혜석의 연인이자 근대사의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 폐병으로 1918년에 죽고 만다."

김일업 "사인이자 수필가. 나혜석, 김명순 등과 더불어 자유 연애를 부르짖고, 잡지 <신여성>을 창간하여 봉건체로부터의 여성 해방을 주장한 여성 예술가이다. 30세가 넘어 불교에 귀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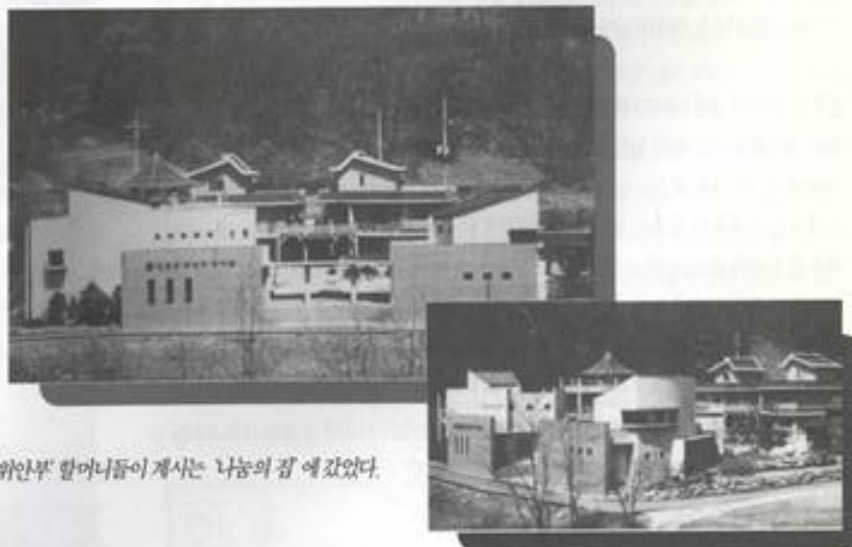
김우영 "나혜석의 남편. 나혜석의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후에 나혜석과 이혼한다. 술에 취해 아내를 두었으며, 최린과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나혜석과 이혼한다."

특별한 만남 - 위안부 할머니, 성매매 여성과 함께 숨쉬기

완월동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완월동에 간다. 완월동이라 하면 부산 최대의 성매매집결지구, 흔히 말하는 사랑가가 바로 이곳이다. 업소마다 찾아가서 이모(업소 앞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부산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살림'의 소식지와 사탕, 콘돌 등의 선물을 드린다. 유리방에 앉아 있는 인형 같은 언니(성매매 여성)들과 앞에서 호객하는 이모들, 언니들을 고르고 있는 남성들과, 월요일이면 한 본 높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소식을 들려주는 우리들이 그 공간에 함께 있다. 묘한 느낌이다. 유리방 속에 앉아있는 언니들의 텅 빈 눈빛과 마주할 때면 슬퍼진다. 언니들이 삶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는 것 같다. 복력, 감금, 학위 등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삶을 하나둘씩 알게될수록 더욱 마음이 아프다. 환한 표정으로 인사하려고 애쓰지만 눈물이 쫓겨온다. 성구매자들과 업주 등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성의 몸을 함부로, 멋대로 이용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대가로 돈을 준다 하지만 언니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돈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이유로 빚만 늘어갈 뿐이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 등의 이야기는 정말 교과서만의 이야기일까.

나눔의 집



작년 여성주의 기행동아리 마실 활동을 하면서 기행(기존활동)과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에 갔었다.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성매매와 위안부' 문제는 나에게 있어 큰 화두가 되었다.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 이번 겨울 방학 때 다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다. 지난 여름에 이어 겨울에도 나눔의 집에서 Peace Road 캠프가 열렸는데, 그 캠프에 교사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Peace Road 캠프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인권·역사 캠프이다. 6개월여 만에 다시 할머니를 만나니 너무나 반가웠다. 조용한 마을에 평화롭게 자리잡은 나눔의 집. 여름에는 강렬한 햇빛에 반짝이더니, 겨울에는 소복이 쌓인 하얀 눈이 나눔의 집을 감싸고 있었다. 캠프는 2와 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캠프를 함께 한 흥미로운 붓다피아 불교동아리 친구들은 참 밝고 예뻐다. 캠프 기간 동안 전쟁과 '위안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토론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모의재판도 열었다. 역사관 안에 그 당시 위안소를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위안부'가 된 심정으로 엽서를 써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서 자행되었던 양민 학살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평화와 인권을 기치로 모든 전쟁에 반대하자고 함께 다짐을 했다.

할머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

캠프 준비 기간과 캠프 일정 동안 할머니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다. 귀가 잘 안들리셔서 목소리가 특히 크신 박두리 할머니는 안마 해드리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 둘째날 즈음 "그 언제가노! 집에 안가나, 가라! 가라! 양심도 없는 것들, 밥만 축내고!" 하시며 호통을 치셔서 어찌나 놀랐던지. 하지만 할머니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 그림 솜씨가 특히 뛰어나신 김순덕 할머니는 참 고우신 밋쟁이 할머니이다. 인기 캠프 백발 호호할머니 이옥선 할머니는 소녀의 감성을 가진 분으로, 할머니의 다정한 말투와 눈처럼 하얀 머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 짓게 한다.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이옥련 할머니와 김군자 할머니. 한국, 중국, 일본 노래 중 모르는 노래가 없으신 가수 배춘희 할머니. 청일점 교사 오빠에게 "총각 이빠!" 하시며 민망한 말을 특목 던지시던, 그래서 늘 폭소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리시던 한도순 할머니. 이영애 닮으신 이쁜 할머니 박옥련 할머니. 박옥련 할머니는 참 조용하고 차분한 할머니이신데, 어릴 적 이야기 들으면서 겁먹 놀랐다. 정말 정말 짝꿍은 장난꾸러기 할머니였던 것이다. 할머니의 어릴적 장난 시리즈는 다시 떠올려봐도 정말 재미있다. 중국 가신다고 못 뵈는 자들이 할머니와 강일을 할머니. 올 여름에 포욕 만났으면 좋겠다. (나눔의 집 할머니 - 정말 보고싶어요 T-T)



내 삶에 닿는 아픔

캠프 일정 중에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시절을 증언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옥선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 몸이 아파왔다. 마음에서부터 머리 끝, 발 끝까지 소름이 확 돋고 땀속부터 목구멍까지 겹겹으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 참 많이도 우셨다고 한다. 총칼을 차고 들어온 군인에게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주말이면 100명이 넘는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던 할머니의 지난 역사. 성병에 걸리면 끓는 수온을 그대로 자궁벽에 발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사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 예사였고, 임신을 하면 강제로 유산 당하거나 출산하고도 그 다음날이면 다시 위안부 일을 하셔야 했다. 할머니들의 끔찍하고도 아픈 역사에 감히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는가. 위로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 않은 일 같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성 5만~30만명 정도가 군 '위안부'로 강제동원 되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그 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적 노예로 쓰고선,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여전히 망발을 늘어놓고 있으니, 화가 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지가 언 10년, 500회가 넘었어.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할머니가 한숨을 몰아쉬었다.

"전쟁이면 제일 먼저 피해 입는 사람이 바로 여성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역사에서는 가장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견해는 '위안부' 여성의 '아버지', '오빠', '아들'의 문제였다. 즉 '내 누이, 내 어머니, 내 부인을 감히 내 얼굴에 일본놈들의 장악을 맡아 부은 듯한 분노와 치욕감에 치가 떨린다.'는 그들의 시각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았다. 그들의 분노와 치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위안부' 생활의 고통스러운 역사는 그들의 소유물로서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 당한 분노의 역사이다. 전쟁 상황에서 여성은 처절하게 이용당한다.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남성 군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필요하고 잔인하게 희생된다. 적군의 기를 꺾고 패배감을 몸서리치게 만드는 데는 적군의 여성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그들은 알았다. 단지 기사도 정신에 조금 해를 입고 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누이와 딸이 적군에게 끌려가서 노리개로 이용되는 상황에 처하면 견줄 수 없는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해서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성들은 무참히 짓밟힌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99년도 보스니아 전쟁에서도 비정기 강간캠프가 설치되었다. 여성의 몸을 무기로 이용하는 전쟁, 그 가운데에서 가장 처절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바로 여성이다.

-김순덕 할머니의 말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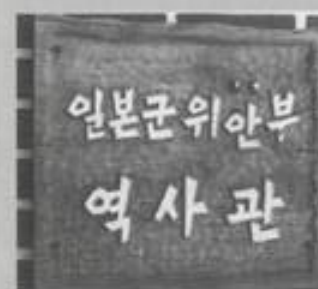
나는 여성주의자가 되고 싶다. '위안부' 문제나 성매매 문제 등을 접하며 여성이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형이나 노리개 처럼 대우받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낯이 뜨겁게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은 여성주의자가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갈 길이다. 이것은 책임이기도 하다. 할머니의 증언을 직접 들은 자의 책임,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눈빛에 아파한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기꺼이 이 책임들을 마음에 आरो세기며 살아갈 것이다. 전쟁 때문에 여성들이 희생당하지 않고, 성매매 없는 세상이 올 그 날까지.

그들과 함께 숨쉬는 여성주의자를 소망하며

'살림' 활동과 나눔의 집에서 Peace Road 캠프를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보니 이 두 문제가 자연스럽게 닿아있음을 알았다. 이 두 상황은 껍질 놀랄 만큼 닮았다.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는 박탈당한 채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거부했을 때에는 모진 매와 욕설이 뒤따른다. '숙아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똑같다. '위안부' 생활은 돈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는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데 속거나 막무가내로 발로 차이며 끌려가서 '위안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매매 역시 소개업자나 광고에 속아서 시작하게 된 경우가 다반사이다. 둘 다 돈을 못 번다.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고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빚만 늘어날 뿐이다. '위안부' 여성들은 군표를 받았으나 중간에 포주 노릇 하는 사람에게 모두 넘어가고, 성매매 여성의 최대 또한 업주가 가로챈다. 할머니 증언에 따르면 1주일에 한번씩 성병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에도 완월동이나 해운대 (X) 지역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보건소에서 1주일에 한번씩 성병검사를 받는다. 검금과 폭행, 협박도 일제사 때 '위안부' 상황과 지금의 성매매 상황이 똑같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몸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띈다. 인권유린, 학위, 폭력, 여성도 사람이다. 사람을 어떻게 도구로 대한다 말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위안부'와 성매매가 거의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문제에는 분노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에는 그토록 민족의 이름으로 자존심 상해하면서 성매매 문제는 성매매 여성 탓만 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한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위안부' 여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이다.

※ 현재 일본군 '위안부' 라는 용어와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이 이곳에 있다. 이곳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주 한글수업과 함께 그림수업을 통해 익히신 그림으로 수 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그림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상을 역사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수요일에는 빠짐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나가고 있다.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월당리 65
전화 | 031-768-0064 Fax | 031-768-0814
홈페이지 | <http://www.nanum.org/>

살림

살림은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서구 초장동)의 이름이다. '살림'이라는 말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성산업 구조의 고리와 폭력으로부터 구조하고 피해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현재 업소에 있는 여성들과 탈출한 여성들을 상담하여 신변 안전문제나 선불금 문제 등의 해결을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들의 경찰조사나 재판과정,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지원활동을 한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대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에 아웃리치를 나간다. 아웃리치 라는 말 역시도 바깥으로 손을 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업소의 여성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열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 밖에도 성매매 피해 여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며 성매매 전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위치 | 부산시 서구 초장동 54-29번지 1동 3번
전화 | 051-257-8297 (상담) 051-247-8292 (사무)
fax | 051-247-8229
E-mail | survivors@hanmail.net
홈페이지 | wom-survivors.org

3.8 여성의 날 기념 강연회

사랑법 | 제 1장 - 다치지 않고 사랑하는 법 알기

강사 | 김영혜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일시 | 3월 25일 (화) 4시 30분

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 부산대학교 14대 생존전략 총여학생회

문의 | 051.510.1924

부산대 여성주의 소모임을 찾아서

- 그녀들이 모인 곳에 세상이 깨진다!

글 | 평상심 02844@hanmail.net

여학생 잡지 | Herstory

여학생 잡지 (Herstory)는 2002년 헬스토리 총여학생회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헬스토리 총여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매체를 기획하던 중에 (Herstory)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질문! "(Herstory)는 무슨 뜻인가요?" 첫눈에 감 잡은 분도 있었지만 'Herstory'는 말 그대로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온 이야기는 너무도 '그' (History)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의 기준을 남성으로 하고 살아왔던 거지요. 하지만 (Herstory)는 그에서 벗어난 '여학생'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며, 너무 어려운 내용은 지양합니다. 물론 이 말은 내용이 하술하고 가벼운 읽을거리여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Herstory)는 만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생활 이야기. 읽으면서 '아~ 나도 이런 적 있는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에서 부산대 내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Herstory)는 일년에 4번 발행합니다. 시기에 알맞은 주제를 정하기 위해 편집위원들은 고민이 많은데요, 1호에서는 상매에 관련 기획, 2호에서는 페락과 폭력사이, 3호에서는 선거 관련 기획, 이번 호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새 내기와 관련된 기사를 싣고, 꽃 피는 봄을 맞아 연애 기획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도 (Herstory)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요? 여성주의에 대한 생각도 나누면서 여학생(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신 분, 여성주의가 도대체 뭘지 궁금한데 알길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함께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학에 왔으니 아주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Herstory)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시길!

연락처: 510-1924, 016-665-1941 e-mail: 02844@hanmail.net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 월장(越牆)

혹시 월장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들어본 적이라도 있으신가요? 월장은 웹진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태어난 매체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지요. 여성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장애인 노동자의 문제 또한 같이 생각하고 다루고자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은 동등그러나 절반이 남성이고 절반이 여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도와가며, 혹은 보완해가며 평화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이 사회의 주체로 부상한 이래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왔고, 그러다보니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이름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땅에 떨어지고 만 거죠.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언뜻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또는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 강자에겐 약하지만 약자에겐 한없이 매서운 것이 인간의 어두운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소중한 한 인격의 인생을 망쳐놓을 순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성이든 장애인든 행복하고 신나게 살 권리가 있구요. 만약 현실이 가로막는다면 당당히 넘을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하겠죠. 월장(담을 넘다)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용기에 대한 실질적 감각을 길러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세상이라는 존재가 담으로 형성되어,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실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세상이 여성을 (또는 사회적 약자들) 얼마나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그러한 억압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조그만 발자국 남기기입니다. 아직 월장을 모르셨거나 어른이든 어른이든 들어보신 분이더라도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땅의 여성으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당신과 우리 모두가 보듬어 살아가는 이 세상도 훨씬 아름다워 질거구요..."



홈페이지: www.wallzzang.net

커뮤니티: home.freechal.com/wallzzang

여성주의 기행 동아리 | 마실

여성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었지만 떠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생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혹은 사회가 험하기 때문에 학교와 집을 떠나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집안에 갇혀 있게 했지만 마실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넘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MT는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느끼고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천목을 제외하고 말이죠... 놀기만 하는 시시한 MT나 아무 느낌 없이 시간만 보내는 여행이 지겨운 분들, 마실로 오십시오. 여성들끼리 가는 여행, 그 여행에는 절만한 술과 향락은 없지만, 정신을 살찌우는 대화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가진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테마가 있는 기행은 나 자신에 대해, 여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통과 상처는 모두 기행장소에서 풀어버리고 오시다. 학교만 다니면서 나 자신에 대해, 여성성에 대해 생각 없이 지내오셨다면 테마가 있는 기행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테마는 모임원들이 모여서 정합니다. 마실의 기행코스는 기본적으로 (나눔의 집)과 여름방학 (기적의 활동)입니다. 이번에도 나눔의 집에 다녀왔는데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과의 만남은 사회상황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고통받은 여성과 여성의 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주 활동인 기행 외에도 함께 좋은 책, 영화를 보고 토론의 시간도 가집니다. 혼자 보기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함께 모여 좋은 책을 서로 소개하고 토론도 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세미나는 여성주의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가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HP: 017-565-0863

E-mail: anyung83@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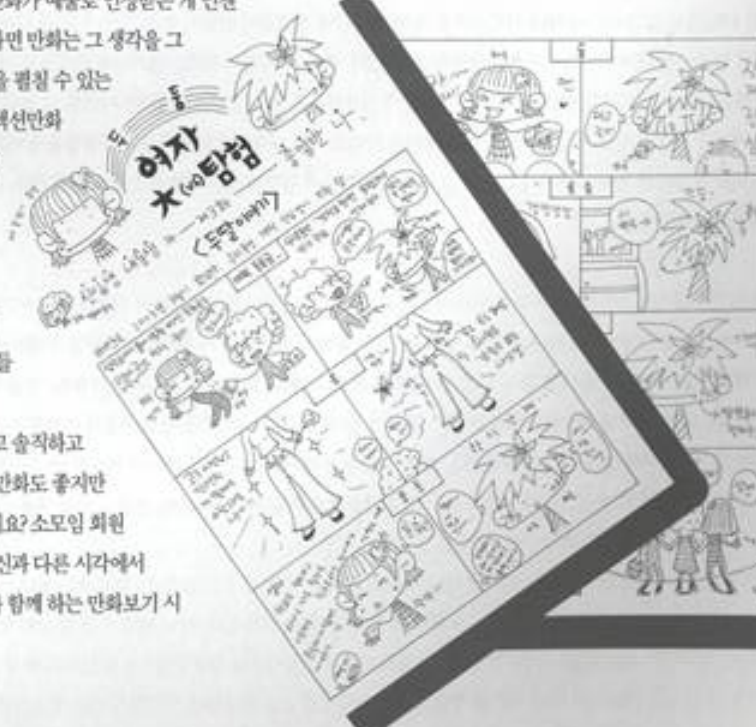
만화 소모임 | 작당

아직도 만화는 어린이들이나 보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만화가 예술로 인정받은 게 언젠가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십니까? 책이 작가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이라면 만화는 그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죠. 펜과 종이만 있으면 하얀 여백 위에서 온갖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만화입니다. 때문에 만화에는 온갖 이야기가 담길 수 있죠. 흥미위주의 액션만화나 로맨스 만화에서부터 인생의 심오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만화까지. 소설처럼 만화도 그 내용과 종류가 천차만별이죠. 때문에 더 진지하게 만화에 대해서 접근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만화를 대하는 좋은 자세겠지요? 만화 소모임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만화를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이야기만큼이나 만화에 대해 독특하고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만화 소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에서는 함께 만화를 보고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 볼 만화를 정합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만화도 좋지만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만화를 본다면 더욱 더 알차게 만화를 볼 수 있겠지요? 소모임 회원들과 함께 하는 토론은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시각에서 만화를 본 사람의 이야기들 들어보는 것은 생각의 폭을 넓게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만화보기 시간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016-459-8134

e-mail: hmdchoo@hotmail.com



신입생 환영 문화를 되짚으며 상상력의 빈곤에서 벗어나기

글 | 손김현정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경영, 문화정책 전공 royaboo@hotmail.net

대학을 졸업하고 또 다시 대학원으로 옮겨가면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풍경 중, 해가 가면 갈수록 예전과 달리 낮설고 낯뜨겁게만 보이는 장면들이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다. 선배는 뒷짐을 지고 서고 선배 앞으로 새내기처럼 보이는 후배들이 일렬로 열중되어 자세로 꼳꼳하게 서있다. 우렁차게 구령을 불이기도 하고 단체 훈련을 받기도 한다. 간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깃발을 들고 서있기도 하고 깃발을 들고 어디론가 줄지어 뛰어가기도 한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경우 선배는 후배보다 단 10cm 정도 높은 곳에서 이런 저런 지시를 내린다. 후배들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인지 아니면, 물에 빠진 권위의식 때문인지 분간할 수는 없으나, 작년 이맘 때, 모 학과 선배들이 군대에서 불법한 빨간색 훈련 조끼 모자를 쓰고 후배들에게 체력 훈련을 시키던 장면을 회상해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진다고들 하는데, 나는 왜 내가 새내기 때는 좋은 환영문화가 지금에 와서는 왜 볼도 보기 싫은 걸까? 예전엔 좋던 것들이 말이다. 속이 좁아 터져서 새내기들의 재미에 질투가 나서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내 눈이 빠들어지지 않은 거라면, 2월 3월이면 의례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내기 환영문화에 뭔가 못된 구석들이 있기 때문이겠지. 어쨌든 필자 스스로 속이 좁긴 하지만, 그렇다고 후배들의 놀이문화를 시샘 할 정도는 아니니, 스스로의 비판의식을 '필교' 신입생 환영문화의 문제점을 찬찬히 살펴 보는 것으로 글의 명분을 다하고자 한다. 그나마도 요즘은 이렇게라도 새나기를 환영하는 모습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 권위적이기만 한 놀이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신입생을 환영할 준비조차 하지 못하는 삭막한 대학공동체의 풍경현상으로 봐야 할지 어쩌면 상황에서 그래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제부터 쓴 소리라도 해보자.

해마다 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학내 이곳 저곳을 누비고 다니며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지령(주문)의 답을 찾느라 추운 날씨에 얼굴이 빨개져 뛰어다니는 신입생들을 볼 수 있다. 때론 그 지령이 억측스럽거나 논리적으로 아무런 타당성이 없어도 그들은 열심히 다. (선배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부호를 달수가 없는 것일까?) 아마도 그 놀이의 명분은 학내의 지리적 특징과 주요 건물을 신입생들로 하여금 익히고 예비 대학생으로서 학교 시설물들을 둘러보게 하는 좋은 의도로 출발한 놀이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의도에 걸맞지 않은 엉뚱한 모습이 연출된다. 글 서두에서도 이미 묘사했듯이,

매년 참으로 똑같다 싶다. 커다랗게 이름표를 붙이고 여러 모듬으로 나눠어진 신입생들이 깃발을 들고 여기 저기를 분주히 기웃거리는 모습에서부터 학내 곳곳의 거점이라 칭한 곳에서 선배들이 기다리다 막 도착한 후배들에게 단련(體) 체력 훈련을 시키는 모습까지 말이다. 그 체력(體力) 훈련(訓練)의 모습과 구호·구령(口令)도 옛날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동기사랑 나라사랑" "동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등의 구호와 어깨동무를 하여 앉았다 일어섰다가 반복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가끔 열 맞추어 뛰기도 한다. 땀흘려가며 열심히 구르고(있는) 새내기들의 모습을 어디서 봤나 싶었더니 n에서 본 군대 훈련소 모습과 닮은 듯 하다. 또, 초중고 시절 체육시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종종 받았던 기합(氣合)과도 비슷한 것 같다.

열심히 따라하는 새내기들을 보면 안쓰럽기만 하다. 제도권 교육을 막 벗어나 그 공기면으로도 자유롭다는 학문 공동체 '大學'에 들어오기도 전에 웬 기합(氣合)과 체력(體力)훈련(訓練)인가 싶다. 아니 새내기 뻔할 모를지도 모른다. 그냥 선배가 시키면 그런 줄 알고 따라할 밖에. 고등학교에서 여섯시간의 정규수업으로도 모자라 비정상적인 아침/저녁 두 번의 보충수업 그리고 세 시간의 야간 자율학습까지 받고도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했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면 더더욱 이러한 무조건적인 훈련에 익숙할 뿐 일터.

이러한 신입생 환영문화를 달갑게 보지 않는 나의 시선을 틀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땀 흘리고 구호를 붙여가며 함께 하다 보면 동기랑 더욱 친해져서 좋아요. 끈끈한 정이 느껴지거든요. 재미있기도 하구요. 또 후배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는 대답으로 나를 반박할 자라도 예교로 뽀주기에다 나무 유치하고(필자는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의 유치원생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다.) 매년 권위적이고 군사 문화의 켜켜기가 남은 놀이문화가 어디서 온 것인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형식에 의존해 따라하는 그 선배들의 상상력이 빈곤해 보일 뿐이다.

혹시 구호 붙이고 훈련받게 하고 일렬로 줄서서 깃발 들고뛰게 하는 그러한 신입생 환영문화의 틀 거리가 군대의 그것을 닮았다는 내 말에 신입생 환영화를 직접 만든 아가 "어, 전 군대 안 간 현역인데요! 군대문화 따라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요!" (늘 이런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는다. 절대!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라고 대답해서 나를 또 한번 웃길 지도 모르겠다.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신입생 환영행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한 가지 만으로 그 방법을 규정한 것도 아닌데,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 달라지지 않는 형식도 문제지만, 그 반론한 내용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행사를 기획하는 선배들의 밑천이 원히 보인다. 궁색하게끔.

2002년 2월 자유게시판에서 [군대문화 켜켜리기와의 전쟁]이란 타이틀로 논쟁이 한창이었다.* 그 이후로 권위적이고 보기에도 불편한 훈련위주의 신입생 환영문화는 많이 감소한 듯 하지만, 여전히 상상력이 빈곤한 몇몇 학과에서는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비록 학부를 졸업한지 1년, 신입생 환영 문화제를 학과에서 기획해본지도 2-3년이 지났지만, 기왕에 글을 청탁 받은 김에 내가 2학년 선배라고 생각하고 기획서를 하나 써 볼까 한다. 자칫 공허한 주장으로 끝날 것 같은 군대문화와 권위적인 상하 위계질서의 문화를 비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획서를 하나 써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서이다.

*2002년 2월 자유게시판 [군대문화 켜켜리기와의 전쟁]이란 논쟁의 발단은 부산대학교의 몇 개 학과에서 비가 오는 날 선배들이 군대 조끼를 연상케 하는 빨간 모자를 쓰고 신입생들을 지도하여 열 맞추 뛰게 했던 것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보고 해당 학과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였다. 물론 그 뱀뱀기의 명분은 신입생을 환영한다는 선배들의 마음에 있었다. 허필하면 그 날 비가 와서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 뛰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 내린 해당학과 선배들과 그것은 군대문화의 소산이고 대학사회의 너무나도 엄격한 선배라는 권위주의 문화에 의존한 놀이문화라고 비판하는 몇몇 부산대 학생들과의 격렬한(?) 논쟁은 한 달여간 지속되었다.

<2003년 고고학과 신입생 환영 행사 기획서>

* 이 기획서는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그 학과에 맞게 구체적으로 쓰여질 것이므로 읽으면서 참고하실 것 바랍니다. 고고학과로 정한 이유는 필자가 고고학과 출신이기 때문임, 그 외의 이유는 없음.

신입생 환영을 위한 놀이

어느 봄날의 유혹

제작: 손김현정

목표: 대학을 이제 막 들어올 새내기들에게 대학의 참 맛(이들테면, 학문정보, 캠퍼스 지리정보, 학과 공동체의 정(精) 등)을 알게 하고, 앞으로 생활할 고고학과에 매력에 꼭~빠지도록 철저하게 유혹하기. 그리하여 새내기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 권위주의 놀이문화로 점철되어 있는 대학 내의 분위기를 틈새를 철저히 활용하여 권위적이지 않은 새로운 놀이문화를 소개하여 학과 자부심을 높인다.
-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새내기들의 감수성을 잘 파악하여, 새내기들이 놀이문화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고고학과 03학번 새내기들과 그 외 선배들

일시 및 장소: 2월 모일 이들 동안, 고고학과 아지트
※ 각별히 후배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인문대의 살인적인 추위를 미리 소개할 필요는 없을 듯.

프로그램: |학교 안 행사| 첫째 날

- 새 이름 만들어 소개하기
- 대학 교재 교환을 위한 벼룩시장
- 부산대 캠퍼스 지리 익히기를 위한 캠퍼스 방문기

|학교 밖 행사| 둘째 날

- 씨네마 테크-영화보고 이야기하기
- 박물관 관람 후 이야기하기
- 갤러리 관람 후 이야기하기
- 추리문학관 관람 후 이야기하기

행사는 크게 학교 안 행사와 학교 밖 행사로 나뉘는데, 학교 안 행사는 처음 대면하는 사이인 만큼 어색함을 고려해서 학교 안에서 놀이문화를 진행한다. 둘째 날은 학교 안을 벗어난 만남으로 자칫 대화의거리들이 궁색해 질 것을 감안해 새로운 이야기의 내용들을 부여할 만한 주제들을 이용한 만남이다. 이들테면, 영화와, 박물관, 미술관의 유물과 미술작품이 이야기 꺼리가 되며, 토론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아래 표 참조|

서먹한 느낌

치는함으로 유도

100%유혹

첫째 날				둘째 날			
프로 그램	새 이름 만들어 소개하기	벼룩 시장	캠퍼스 방문기	씨네마테크 영화 보고 이야기하기	박물관 보고 이야기하기	그림, 작품보고 이야기하기	추리문학관에 서 이야기하기
새 부 록 적	대학의 고질적인 학번 서열을 본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성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다.	후배에게 전달할 만한 교양수업 교재와 그 외 대학교재, 그리고 벼룩시장을 통해 전달하고 새내기와의 친화적으로 교재에 해당하는 수업들과 대학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내 곳곳에 위치한 도서관, 어학실습실, 전산소, 식당, 행정업무 담당할 본관 등등을 직접 둘러보고 실제 대학생활에 도움을 준다.	일반 상업 영화가 아닌 작품성 있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토대로 감상을 이야기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학교밖이라는 신선함으로 분위기를 쇄신한다.	고고학과에 경우 특히 박물관 답사를 함께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유물을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전공의 특성상 심도 깊은 토론도 나누어 본다.	미술이 고상하기만 하다는 선입견을 버리자. 학내 열악한 문화적 기저의 부재를 감안할 때, 부산 곳곳에 있는 갤러리등의 전시를 한 곳 정도 선정하여 함께 둘러보고 차 한잔하며 대화를 나누어 본다. 선배와 새내기 모두 부담을 버리고 즐겨본다.	부산에도 가볼 만한 문화 기관이 있다. 역시 학내 문화공간의 부재로 인해 선택한 학교 밖...해운대 달맞이에 있는 추리 문학관에서 차도 마시고 바다도 보고 야기도 나누고 추리소설들도 보고...
시 행 방 법	각자가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본다. 영어, 한자, 불어, 한글 어떤 언어라도 상관없다. 더불어 학번을 표기하지 않기로 하고 새로운 이름을 부르기로 한다. 권위가 아닌 친금함으로 서로를 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자기 소개도 더불어 한다.	여럿 나누어진 모둠에서 적당한 게임을 한다. 이긴 팀에게는 별표를 나누어준다. 게임이 끝난 후 받은 별표로 선배들이 꾸린 벼룩시장에서 책을 산다. 책 한권 당 교환 가능한 별 개수를 선배들이 정한다. 당연히 게임을 못 한 모듬은 많은 책을 교환 할 수 없는 슬픔이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지도 참조 여러 모듬으로 나누어 실제 대학생활에서 배울 수 없는 도서관, 어학당, 식당 각 대학 강의실 등을 위치와 사용방법을 익힌다. 한 모듬에게 한 건물들을 정해주고 다녔을 후 이용방법과 위치를 대형 전지에 그리게 하여 모든 모듬의 자료로 학내전체 지도를 완성하게 한다.				
주 의 사 항	*절대 학번을 표기하거나 선배로서 군림하려 하지말 것! *신입생과 재학생만을 표기해볼 것 *상호 존대말을 써볼 것!	책을 실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재를 전달하고 교재를 통한 자연스러운 수업 소개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임을 잊지 말자.	*절대 훈련을 시키거나, 말도 안 되는 실용적인 지령 따위는 하지 말 것! 극기훈련이 아님. * 2월은 아직 쌀쌀한 날씨! 후배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동선은 피하자.				

새 등장!! 동생

여자 대 (vs) 탐험

신입생 내동생 과 — 제3화 — 졸업반 나..

<두딸이야기>

바야흐로 2003년 3월이 밝았다. 우리동생 대학 신입생이 되는 달...

**입학금까지 붙어 엄청 비싼 등록금은
얼씨구냐! 적혀 준다.**

우리딸
강하다!!

대학 등록금 4년동안 장학금 한번 못타다고
인간 취급 안해준다.

당신
꼭 장학금
받게...

**고3 시절동안
단련된
저 평배도
사랑스러운
나이!!**

옷

가을 반바지

같은 옷을 입어도
우리랑은
강줄수 없는
나잇살...

엄마
저렴하고
하나라도 카드 충전도...
충전도 하고...
충전도 하고...
충전도 하고...

엄마!!

용돈

한 시간 재...

엄마~
나 학교
간단하?
왜 안하고
서 있냐?
휴대폰만...

음

헤죽...
와아~
카~
머고 죽자!
Beer

진

머고 죽자!
진심

웃음

가장가장가장...
나 백수야
아이고
백수야

또

또...
이 백수야

토익

언니야!
내 다
찍고
갔는데
425점
나왔다!!

음

음...
팜방울의
정체는??

그리고 목욕탕

아직 쇼도한번 제대로 못해 봤지만
그래도 자꾸 줄어드는 엄마의 몸무게가
미안하고 안타까운 큰딸입니다.

빠나나우유
내가 쏜다!!

오냐!
내 딸이 최고다!

아싸!
아싸!

‘한 개인에게 지워진 짐은 무겁다?’ 강대룡씨 글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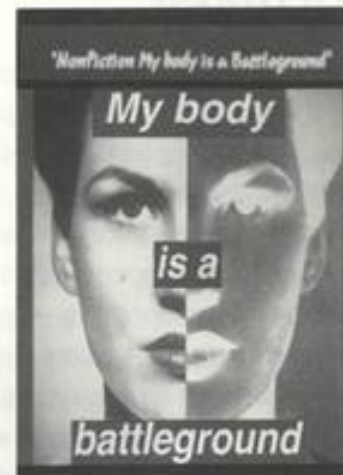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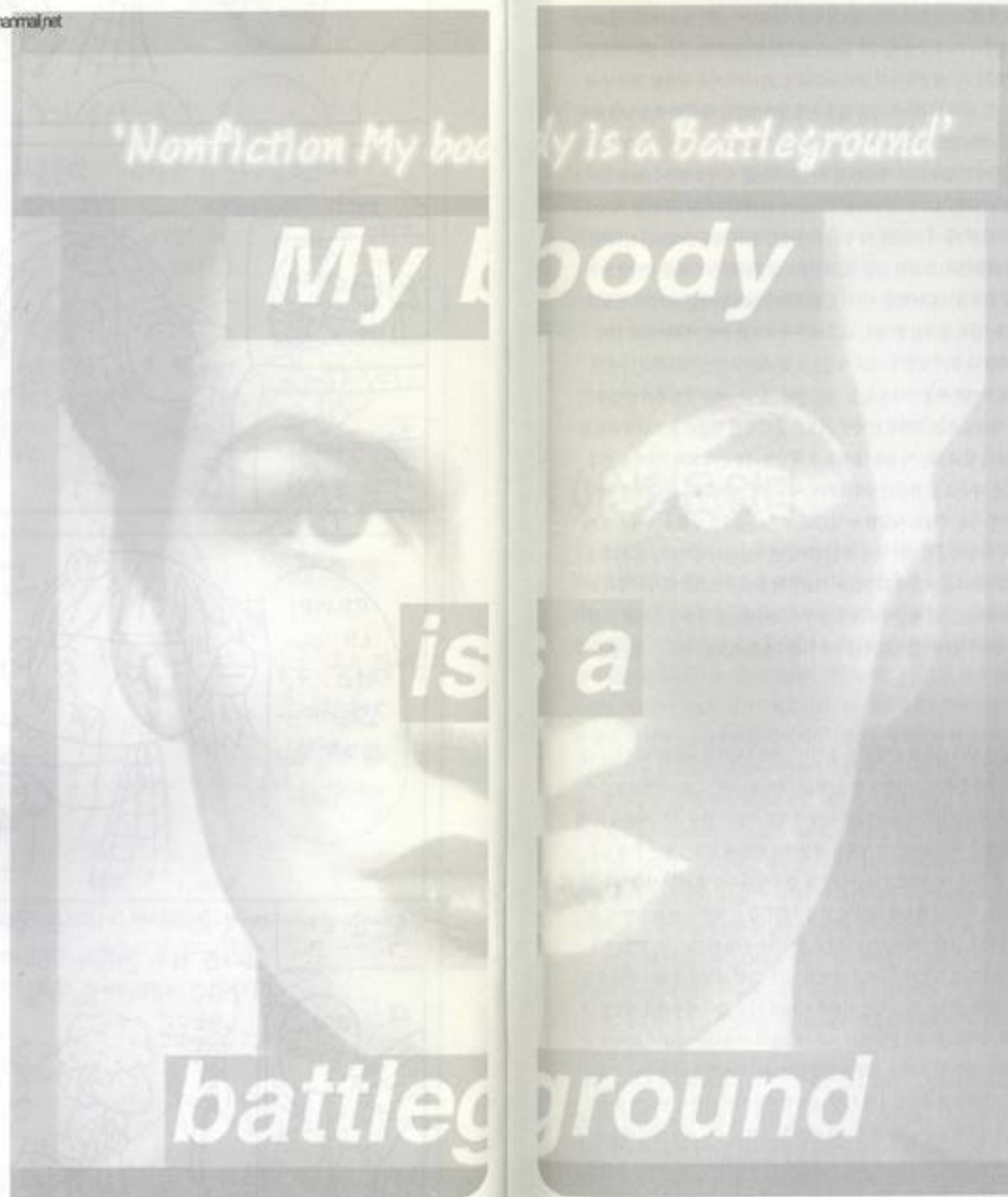
글! 양자 myim@hanmail.net

HerStory 겨울호를 보면서 ‘학! 이 글 모자?’, HisStory도 점점 자기색깔을 잃어가는 건감!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글이 있었다. 내가 잡지의 정체성까지 운운하며, 당황했던 그 글의 제목은 ‘이 시대를 고민하려는 한 개인에게 지워진 짐은 무겁다.’ 바로 생존전략(선본)의 성매매 영화제에 관한 강대룡씨 글이다. 성매매 영화제는 개인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박노자씨 책에서 읽었던 쇼킹트루스가 얼마나 쇼킹한지, 스웨덴이라는 인권국가가 포르노가 심각해봤자 어느 정도겠냐는 의심만 호기심 반으로 갔었다. 총어 선본에서 기획한 것이었지만 많은 남성생들도 와서,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보인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다. 그리고 강대룡씨가 영화제 후기에 대해 글을 써서 흥미롭게 읽기도 했으나 안타깝게 그 글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글에 대한 나의 생각과 성매매영화제와 관련해 다시 말하고자 한다. 미리 밝혀 두지만, 나는 그 글의 평가 생각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 글의 이중성과 생산성 없는 말장난들 그리고 포르노나 성매매에 관해 특별한 지식 없이 남성의 잣대에서 편협하게 본 부분들을 비판하려고 한다.

그럼, 먼저 쇼킹트루스와 포르노에 대해 다시 짚어봤을 한다. 포르노란 말은 그리스 어원인 ‘여성포르’란 말에서 나왔다. 말 자체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여성이 인간이 아닌, 남성의 권력과 힘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다.(정확히는 성매매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포르노’에 국한하여 말하겠다) 당연히 이러한 포르노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며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대하는 악호에 따라 구성되고 연출되고 있다.

포르노는 한국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스웨덴에서도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법의 영향력을 벗어나 사람들에게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포르노의 내용인 즉 원색적이 삽입하며, 강간당하는 여성이 만족스러워한다는 등등등 (말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식선에서의 생각하시고,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섹스까지 왜곡하며, 포르노처럼 하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며, 남녀 관계의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지 않게 개입한다. 예전에 포르노와 관련된 정말 ‘쇼킹!’ 한 얘기를 들었다. 물론 그는 심심풀이로 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인즉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전이라던데’라는 말이다.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얘기가 저런 말을 하고 다녔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걸보에게는 너무나 열렬한 친구녀석의 말이였다. 얼마만큼 포르노가 섹스의 기본서가 됐는지 알만하다. 또한 이러한 포르노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왜 그런가? 이 모든 것은 포르노를 비롯하여 많은 성매매 관련산업들이 남성위주의 권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고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포르노의 잘못된 사회화를 인식하게끔 해주고 그 문제점을 너무나도 정확히 꼬집어 준 것이 바로 쇼킹트루스다. 특히, 쿠키가 보여준 한 여성이



포르노를 찍기까지의 경위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포르노의 출발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 쿠키가 어렸을 때 윤간을 당한 후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경멸과 좌절 속에서 나온 결과가 포르노 배우였다는 것이다. 포르노가 반여성적인 뿐 아니라 그 포르노를 찍는 과정도 역시 매우 반여성적이었다. 구타를 당하며, 커다란 성기가 삽입되는 것의 환희를 (연기)하는 여성은 그러나, 그 순간 정신을 잃는 듯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 이후 상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역시 소개만 다를 뿐 불이나도 이중 삼중으로 잠긴 문을 열지 못해, 동물도 아닌 사람들, 수십 명의 여성들이 죽어간 군산화재사건을 토대로 여성들의 매매현실과 실태를 고발하였다. 간혹서 죽었다는 점에서 대구지하철참사와 공통점이지만 간헐적 것과 강급당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 자하철 참사 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나라가 한미탕 뒤집어 졌지만 군산화재사건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연속해서 3건이나 발생하였다. 얼마나 사회가 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해 관대하고 안이함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유린의 산물인 포르노를 우리는 매일 스크린을 통해 받고 있다. 이것 역시도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포르노에 대한 접근성이 정말 위험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강대룡씨에게 한가지 물었을 한다. 강대룡씨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서 크게 와 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쇼킹트루스는 정말 마나면 다른 나라 이야기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쇼킹트루스는 남성들이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다큐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야기이다. 또 그 글에서 그는 박노자씨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결론인 듯 위장하며 글을 왜곡했다. 후속으로 상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해서는 상황판단이 안되는 지 말장난만 늘어놓았다. 왜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본관에서 상영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고민하는 그에게 이 시대를 고민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강대룡씨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파악한 그의 결론은 (정말 그의 논리가 먼저 파악하기 힘들지만)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있듯 편히 영화를 봤군 하는 후회막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남성들이 ‘성매매거점10만남성서약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의 틀을 깨며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어보는 좋은 현상인 것 같다. 시대를 고민하고 사회를 고민하는 한사람으로서 양심에 손을 얹어보는 것이 어마실지!

끝으로 강대룡씨가 자신의 글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을하고, 헐스트리도 여성주의 잡지로서 고유한 색깔을 변하지 않고 좋은 잡지로 거듭나길 바란다.



「유리천장 통과하기」을 보고

글 | 팔쥬 bodawn@hanmail.net

여자라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 억울하지 않니?

-100명의 성공한 여성들이 들려주는 성공 전략!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듯이 '성공'이라는 것도 개인인 나만의 판단에 따라 규정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이들이 바라는 욕구다. 나 역시 무척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지만 현존하는 인생이라면 내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 성공이다. 내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싶다.

그러나 20대 중반을 갓 넘긴 현재, 여자라는 것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하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에 조소를 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와 내 친구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19살의 나수능시험을 치고 비록 속마음에 드는 성적은 아니지만 비행기를 좋아하는 취미를 살려 항공대 원서를 넣었다 생각했었다. 하늘을 날아 다니며 새련된 비행기를 조종하는 내 모습을 황홀하게 꿈꾸면서 선생님과 부모님께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밝힌 그 날, 나는 세상을 아직 모르는 청부자로 낙인 찍혔다. 여자가 취직하기도 힘들고 안정적인지도 않는 직장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내 선택을 극구 만류하셨다.(엄마는 1주일 동안 나와 말도 안 했다)

25살인 내 친구 대학 4년 동안 줄곧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성실히 마친 후 모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러나 1년 남짓 지나자 생각도 안 했던 시집이나 갈까라는 생각이 글썽갈었다. 지방대였다가 여자라는 이유가 여전히 핸디캡으로 작용되고 회사 실적이 떨어지면 여직원들은 배민 구조조정 0순위에 오르기 때문.

이 외에도 성별의 차이로 지금까지 받아 왔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례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장벽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진행된 여성의 선거권 쟁취에서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 문제까지 피말 흘려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나와 내 친구들의 설 자라는 누구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고 싶었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여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어떠한 노력으로 깨었는지, 그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서두가 길긴 했지만 그래서 잡은 책이 '유리 천장 통과하기 (한암사)'이다. 이 책은 리더십 개발 전문가인 캐럴 겔러허가 '포천'지가 선정한 1천대 기업에서 최고경영자 혹은 최고경영자가 되기 직전에 있는 여성 임원 100여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이 성공을 위해 세워야 하는 전략과 잘못된 통념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 젊은 여성이 지명되었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우리나라에 비해 그나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용이한 국가들의 사례들이어서 한국 현실에 100% 적용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았다. 또한 학벌과 지연으로 얼룩지고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사 판단 기준이 부실한 한국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적용될 수 있는 전략들도 많았다는 점이 이

책의 단점이라는 것도 미리 밝혀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은 그동안 생각해 왔던 성공전략들이 일부 잘못된 통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통찰을 선사했다.

첫 번째로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 이 책을 창출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실적은 중요하다. 실패라는 것 역시 자기 밀거름이 되기 보다 자존감 감퇴와 능력에 대한 절타를 의미한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 진정 중요한 것은 결과이기 보다 얼마나 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조직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사소한 실패는 자신의 단점과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네트워킹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점. 자신에게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모임이나 명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이라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휴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각증 개발에 더욱 신경을 써 왔고, 자신의 일만 충실히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 해 왔다. 그래서 '슈퍼우먼 콤플렉스'라는 말처럼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완벽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로 성공하기 위해서 냉혹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성공한 여자들을 '독한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여성의 성공이 열려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을 밀어 내야 하고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인식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 능력이 중요한 요소이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열린 자세가 되어야 만이 팀워크를 형성해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win-win 전략을 구사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적은 여성이 아니라 그들을 동지로 받아 드리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숨어 있으면 출세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 성공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독한 스토리라이프를 받아 왔다. 개성적인 옷을 입어도, 자기 주장이 강해도 장점보다는 조직에 융화되지 못한다고 부각되어 왔다. 그동안 지명되었던 여성 장관들이 짧은 임기만에 퇴출되었던 것도 이러한 시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여성들에게 힘들지만 숨어 있지 말라고 당부한다. 숨어 있으면 현재 자라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능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못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남자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이 깨야 할 통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형성된 남성 중심적 조직사회에 끼여 있기 위해 야한 농담도 한 두 마디 할 줄 알아야 하고 못마시는 술도 억지로 마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남성처럼 행동하는 것이 신뢰는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100명의 성공한 여성들이 조언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을 옹호해 주는 사람을 찾으라고 당부한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학벌과 지연에 따른 인맥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자신의 역할 모델을 찾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줄타기 식의 인맥 맺기는 자신의 커리어를 향상시켜주지도 못할뿐더러 조직에서 소외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자신을 옹호할 수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6가지 깨야 할 통념을 제안하면서 이 책은 성공을 위한 통념으로 '역량·성공·인내·관계'를 꼽았다. 개인적으로 '관계'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 무척 반가웠다. 일부 물리적 남성에 의해 '여성'은 독립적이지 못해, 늘 관계를 중시하거나 성공할 수 없어라는 절타를 들어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후 난 이유는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남성 중심적 구조가 진위적이고 공격적이고 독립적인 자신의 성향을 강요하며 승진의 길에 여성의 진입을 막아왔지만 앞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성향 외 과장을 중시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감성과 남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시각이 열려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어서였다.

덧붙여 자신에 대한 성공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었다. 만약 이 글을 읽은 후 서점에서 책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모 박스에 속한 글을 유심히 읽고 뒤쪽에 있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성공지도 한 번 그려보시라. 필자도 여자라서 당치 않게 사회의 거부에 무릎 꿇기 보다 세상에 인정받을 날을 꿈꾸고 전략들을 꼼꼼히 세우고 있니까. 음, 내 강점은 뭐더라? ㄹ

1 캐럴 겔러허 · 수잔 골란트 지음, 박진희 옮김 한암사



「일상의 반란」을 보고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글로리아 스타이넘
행복은 나의 것



글 | 소영 growtree@hanmail.net



※HerStory 2호에 마요네즈씨의 같은 책에 대한 서평을 실려있습니
다. 그렇지만 이 글은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목소리라고 판단하고 실기로 했습니다.

여성주의는 내게 어떤 의미인가. 여태껏 아무런 의심 없이 여성주의에 동의를 하고 지지를 보내왔지만, 이 문제를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통해 여성주의가 나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았다. 여성주의의 힘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산다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여성이 결코 남성에게 열등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나의 삶이 지금보다 백 배나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알게 되었다.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은 오랜 시간에 걸쳐 스타이넘이 쓴 다양한 글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1부와 2부에는 여성들이 처해있는 현실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놀라운 것은, 70년대에 쓰여진 이 글들이 지금의 현실에도 들어맞는다는 사실이다. 3부에서는 마릴린 먼로나 린다에 관한 글을 통해, 서로 다른 위치나 환경에 놓인 여성들간의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한다. 4부에서는 스타이넘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여성들간의 연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충격적이었던 포르노에 관한 진실을 통해 남성들의 의식 속에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들이 포르노에 열광하는 이유

내가 처음으로 포르노를 보게 된 것은 고3 때였다. 친구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음으로 접한 그 포르노에 의해 나는 마치 강간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전에 몇몇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포르노를 보았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더럽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포르노를 보았다는 죄의식 때문에, 혹은 자신에게 그러한 성적 호기심이 다분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여자도 남자와 같은 성적 욕망이 있는 이상 남자들이 그토록 즐기는 포르노를 여자가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포르노를 본 이후, 나는 남자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포르노에 왜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포르노 속 성관계는 결코 섹스가 아니다. 섹스가 아니

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욕망이며, 더군다나 그것은 철저히 여성들을 쓰레기통에 처 넣음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만든다. 포르노 속 여성은 섹스의 상대자가 아니며, 그저 남성들의 정액을 받아주는 '물건'이다. 심지어 포르노 속에는 섹스를 하면서 여성들을 학대하는 장면까지 버젓이 나온다. 여성들이 포르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타이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똑같은 성적 제한물이라 하더라도 섹스 당사자들간의 권력의 공유, 사랑에서 오는 공감감이 있다면 그것은 에로타카이다. 반대로 섹스를 통하여 권력의 불균형을 노골적으로 묘사할 때, 폭력과 강간을 정당하게 그려낼 때 그것은 포르노 그라피가 된다. 그러나 여성들이 원했던 것은 에로타카이지, 결코 포르노그라피가 아니다. 포르노 그라피는 넘쳐나지만 에로타카가 구체화된 예는 별로 없다. 우리 사회의 성적 욕망은 철저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여성들의 쾌락에 대해서는 그리 적극적으로 고민되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들의 운명, 우리들의 고민

이렇듯 포르노 그라피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현실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이 그런 불편한 필름들을 보고 난 뒤 그것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내버린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포르노를 만들어내는 몇몇 번째 같은 남성들의 소행이 아니다. 누가 그 남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작품(이 아닌 쓰레기)을 만들어내도록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이 아닌 쓰레기)에 등장하는 여배우들의 삶은 결코 나와는 무관한 것들이 아니다. 그녀들이 포르노 속에서 보여주는 그 굴욕적인 행위가 현실 사회에서 다양한 성적 관계의 양상들을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스타이넘은 젊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다른 여성들에 비해 덜 급진적이 되어가는 이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나이가 든 여성에 비해 불평등을 덜 겪은 편이라 급진적인 변화에 있어서 오히려 나이가 든 여성보다 더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굳이 세대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나는 많은 여성들을 여성주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 그것이 라고 본다. 여성의 현실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는 많은 시안들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일상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한다면 '우리 딸들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매에는 필요하다'라는 무식하고도 무시무시한 소리나 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행복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회의 문화나 제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남성들의 구미에 맞춘 여성으로 살아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인형 같은 행복만은 아닌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여고생이었던 우리들 사이에선 순결 논쟁이 꽤 많이 일어났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만 해도 순결하게 살고 싶어하는 여학생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다른 여자들이 순결하긴 하지 않건 상관 없다. 하지만 나는 순결을 꼭 지키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혼전 성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혼전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남자가 첫날 밤 자신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부도덕한 여자로 여기는 것이 겁이 난다는 이유였다.

나는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억압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체제나 제도도 무섭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역시, 남성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에 있다.

여성주의, 나를 사랑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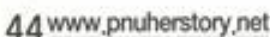
'영원히 사는 것보다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스타이넘의 말이다. 나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스타이넘의 말대로, 나는 나를 평가하는 잣대를 언제나 남성들의 시선에만 맞추어 온 것 같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성들이 생각하는 미인의 기준만을 마음리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남자가 계수 있어하는 여자의 타입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잘 가공해 왔던 것 같다. 그것은 결코 나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었다. 훨씬 더 아름답게, 생기있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살아가는 내내 여성들은 끊임없이 그 자신을 하등인간이라 주입 받으며 살아간다. 대신 모든 여성들은 그 아픈 기억만으로도 천구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이름을 '자매'로 치유하고, 결코 우리가 하등인간이 아님을 서로 서로에게 확인시키는 길.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긍정하면서 살고 싶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지음, 양이현정 옮김, 현실문화연구



글 | 명화 hmadh@freechal.com



“남을 때리거나 해치지 마시다”

-피구와 전쟁에 관한 짧은 사색(?)

글 | 벨리 ddosily@freecat.com

날씨가 풀린 캠퍼스의 오후, 마릴 네티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짝피구를 하고 있었다. 함께 갔던 마사마로 여사에게 “피구 정말 무섭지 않냐?”고 넌지시 물었다. 마사마로는 “맞다! 사람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는 것 같다.”며 맞장구를 쳤다. 새삼 나만 느끼는 공포가 아니었구나. 연대감을 느끼면서 피구에 관한 공포의 기억을 가만히 생각해봤다.

나의 피구에 대한 공포의 기억은 초등학교로 거슬러간다. 초등학교 때 유난히 반대항개임을 많이 했는데, 특히 여자들은 피구를 많이 했다.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았던 나는 왜 그런지 유독 피구를 할 때만 움츠러들곤 했다. 한정된 공간 속에서 내 몸에 공이 맞아 아픈 것은 것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 내가 공을 너무 세게 던지거나, 혹은 내 공이 누군가의 얼굴에 직통으로 맞아서, 그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내가 특히 착해서가 아니라, 아주 승부욕에 불타는 아이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 공을 던진 아이가 아주 민망한 표정으로 말쑥말쑥 서서 더 이상 게임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거나, 게임이 되고 중단되고 다들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미안함을 표했던 것 같다. 몸에 공을 맞은 친구에게 미안함이라는 감정과 승리의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의 스포츠정신은 ‘빨리’ 못했다.

물론, 스포츠 정신을 일차감치 잘하게 깨우친 아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반 바로 옆반에 김주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부가집 팔레트에, 외모도 아주 출중한 아이였다. 애들이 맞아서 아픈지, 자존심 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 ‘빨리 스포츠정신’의 눈빛으로 무서운 속력의 공을 던지던 그녀. 그녀가 공을 잡았다고 하면, 아이들은 서너번 연속으로 퇴출되는 것은 거의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녀의 공에 맞은 아이들은 맞은 부분을 아무런 지름, 가쁜 눈물을 흘리며 바깥으로 나갔고, 주희가 공을 잡으면 잡히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귀찮게 마냥 구석으로 구석으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다.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이런 구차한 풍경이 다 있을까 싶지만, 초등학교 꼬마의 멧집이랄 게 있었을까 생각한다면 구차하다기보다는 ‘참혹’하다는 게 맞는 표현일 듯 하다. 물론, 주희보다 약했던 보통 아이들의 순진한 ‘소심함’은 게임을 거듭해가면서 아픈 표정을 애써 감춰가며 패배를 인정하는 한편으로 주희를 닮은 ‘공격성’으로 작용을 해갔던 것 같다.

때론 공격성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스포츠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권위를 하면서 사람이 죽고, 사람 몸에서 공을 냈다 던져 안경 부서지고,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듯 이게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싶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의 사람 해치는 스포츠를 하면서 합법적인 틀에서는 남을 때리고 공격해도 된다는 이상한 상식을 주입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슬픈 일 아닌가?

유엔동의안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예정되어있는 3월 19일 오늘에서야 나는 피구를 하며 느꼈던 공포가 전쟁의 공포와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본다. 누군가(?)는 몰라도 대다수는 밖으로 도망칠 수도 없다.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폭격과 강간과 학살의 위협의 불구덩이 속에서 수십가지 폭력이 단지 내 몸을 피해가기만을 바라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다. 그래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면, 때론 공포에 맞서기도 다 미쳐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곳에서 극한의 공포라는 표현은 더 이상 과장이 되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울까? 이라크 사람들은.

사람과 땅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국제스포츠게임에서 유엔의 핵사찰을 책잡아 간수들을 쫓아냈다는 부시의 생각은 참으로 잘하고도 엘리트적인 스포츠정신이다. 설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대량살상무기개발을 반대하기 위해 대량살상의 전쟁을 한다는 거, 완전 제로섬게임의 논리이며, 나죽고 나죽자의 논리이다. 그놈의 게임의 법칙은 땅과 사람의 생명은 그저 불가피할 뿐인 것이라며 어깨를 한번 으쓱할 뿐이다. 이미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바람에 뒷전에 몰려나버린 것은, 인권과 생명 공존이라는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윤리이다. 사람은 죽어가는 데 정신난 팔팔하게 살아남은 ‘대폭적 공격성의 긍정적 해소’라. 이제 좀 반대적이지 않나?

인생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석유가 떨어지던지, 그 전에 피비린내 속에서 두려워하며 병들고 다치고 죽어가는 맞은편 사람들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말로 해서 못알아듣는다면 참으로 유치한 방법이지만, 부시를 포함한 전쟁지지자들도 4년 3만 김주희를 상대로 피구 한 판 뜨면서 두려움에 떨던 말어보고, 또 우리 동네에 한번 폭격 한 열 번만 맞아보고서 그때에도 비드 불가피한 게임이란 생각이 들면 그때 선전포고를 해도 늦지 않다. (다해봤자 심분도 안걸릴 걸)

ps. 그때 살아남아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 같다”며, 어깨를 한번 으쓱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당신들이 두말했다고 욕하지 않을 테니, 전쟁조장이란이 여러분, 남을 해치거나 때리지는 안됩니다.

psps. 그러나, ‘예정’되어있던 전쟁은 터지고야 말았네요. 화나고 알하고 슬프고, 마음이 꽤나 무겁네요.



일시 4월 1일-3일 장소 본관 대회의실 3층

일본군 성노예 문화제

전쟁, 여성, 그리고 성매매 -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기억한다는 것은

4월 1일 (화)

4시 30분 | 영화상영 <숨결> (변영주, 35mm, 77min, 1999)

6시 30분 | 강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과 과제 | 안희정선

4월 3일 (목)

4시 30분 | 만남의 시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여성들과 교류하기

6시 30분 | 공개세미나 <2003, 일본군 성노예를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HerStory (이변)정의

성매매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유사성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 박김혜정

여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반전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양윤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하여 - 의원사회 이지혜

문화제 기간 동안 학내 곳곳에서 슬라이드 상영

4월 2일 시청열 불교화관 2층, 일일초청 및 크립전시

■ 주최/주관 | 생존전략 총여학생회 ■ 문의 | 051.510.1924 ■ 후원 | 나눔의 집, 대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